



YNOT 파운데이션이 LA 카운티 정신건강국과 함께 정신건강 문제 예방을 위한 무료 세미나를 개설하고 신청을 받는다. 지난 2월 5일 YNOT이 이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신건강 지켜주는 무료 “구급상자” 신청하세요

YNOT, KACC 등 정신건강국 그랜트 받아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다양한 봉사 사역을 해 왔던 YNOT 파운데이션(Young Nak Outreach & transformation Foundation)이 “마음을 지켜주는 구급상자”라는 정신건강 문제 예방 및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YNOT은 나성영락교회가 2008년 지역사회 봉사를 위해 설립한 이래, 커뮤니티 내 비영리 단체 사역기금 지원사업을 펼쳐 현재까지 150만 달러를 전달한 바 있다. 이외에도 사랑의 도서관, 노인건강 엑스포, 아시안 발달 장애우를 위한 그룹홈, 커버드 캘리포니아 상담, 유권자 등록, 우편물 번역이나 전화 통역 서비스, 이민국 서류 작성, 무료 영어 및 시민권 교실 등 다양한 사역을 펼쳐 왔다.

약 4년 전부터는 한인들의 정신건강 문제에 주목, ISM(Integrated Service Management) 프로그램을 시작해 의료보험이 없어도 약물 중독, 정신건강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왔고 멜라니 리 암 서포터 서비스의 그랜트를 지원받아 암 환우와 그 가족의 정신건강 및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사역도 했다.

이번에 YNOT이 새롭게 진행하게 될 “마음을 지켜주는 구급상자”는 한인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를 사전에 예방, 교육하는 세미나로서, 이 분야 전문가들이 세미나를 신청한 교회나 단체를 직접 방문해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고 상담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는 LA 카운티 정신건강국으로부터 10만 달러의 그랜트를 받아서 진행되기에 세미나를 신청한 단체에겐 비용의 부담이 전혀 없다.

본노 조절 교실 외에도 우울감이겨내는 법, 이민 1세와 2세의 효과적인 대화 기술, 십대 우울과 자살충동, 어르신들의 스트레스 정복기, 엄마가 알아야 할 아동기의 마음건강, 종교 지도자가 알아야 할 마음건강 등 총 15가지의 세미나가 주제를 별도로 마련된다. 물론 한국어, 영어가 지원된다

몇 가지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무료이지만 이를 신청하려는 단체는, 본노 조절 교실은 최소 11명, 나머지는 최소 31명이 참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 2면에 계속

미국 Ph.D.도 한국어로 취득 시대 열리나

미드웨스턴신학교 Ph.D. 과정 한국어로 개설 준비

미주리 주 캔사스시에 위치한 미드웨스턴침례신학교가 2월 중 Ph.D.(철학 박사) 학위를 미국 주류 신학교 가운데 최초로 한국어로 개설한다. 그동안 미국 신학교 내에서는 D.Min.(목회학 박사), D.Miss.(신교학 박사) 등 전문학위 과정은 한국어로 제공하는 학교는 다수가 있었다. 그러나 Ph.D.나 Th.D.(신학 박사) 등 학술학위를 한국어로 제공하는 학교는 전무했다.

미드웨스턴신학교(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www.mbts.edu)는 미국 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교회(SBC) 산하 6대 신학교 중 하나로, 규모 면에서는 미국 10대 신학교에 속한다. 이 학교는 북미주 주류 신학교의 학위를 인가하는 ATS(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와 미국 내 중북부 지역 종합대학교의 학위를 인가하는 HLC-NCA(Higher Learning Commission of the North Central Association)의 인가를 모두 갖추고 있다.

이 학교는 이미 MATS(신학연구 석사), MTS(신학 석사) 등 석사 과정과 D.Ed.Min.(목회교육학 박사), D.Min. 등 박사 과정을 한국어로 개설해 운영하던 상태였다. 이번에 개설되는 Ph.D. 과정의 전공분야는 성경사역학(Biblical Studies with Biblical Ministries Emphasis)으로 박성진 학장은 “그동안 미드웨스턴 한국부가 쌓아올린 전문적이면서 실제적인, 높은 수준의 강의

가 바탕이 되었다”고 강조했다. 52 학점을 이수하고 종합시험과 논문이 통과되면 학위가 수여되는데, 평균 4년 정도가 걸린다. 대부분의 전문학위가 언어 규정이 까다롭지 않지만 이 학위는 학술학위이기 때문에 제2외국어가 필수다. 학교 측은 “예를 들어 칼 바르트의 목회 철학에 관해 논문을 쓴다면 독일어를 제2외국어로 선택해야 한다. 그러나 본 과정은 한국어로 진행되므로 영어도 제2외국어로 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학장은 “우리 한국부 프로그램의 수준은 한국과 미국을 포함해서 어느 신학교와 견주어도 훌륭하며 앞으로도 계속 나아질 것”이라며 큰 관심을 부탁했다.

현재 미국 신학교들 내에서 한국어 과정은 가히 붐이라 할 만하다. LA 지역만 해도 풀러신학교는 D.Min. D.Miss.와 함께 MAICS(신교문학 석사), Th.M in Missiology(신교신학 석사) 등 다양한 학위 과정을 제공한다. 아주사대학교 하가드 신학대학원은 LA 분교를 중심으로 M.Div.(목회학 석사)와 D.Min.을 한국어로 제공한다. 캔사스 주에 본교를 두고 있지만 LA에 분교를 두고 있는 센트럴침례신학교도 M.Div.와 D.Min.을 제공한다. 역시 LA에 분교를 두고 있는 골든게이트침례신학교는 M.Div.와 MTS 학위를 제공한다. 클레어몬트신학교는 한국어의 경우 D.Min. 과정만 제공한다. 그러

나 바이올라대학교 탈봇신학대학원처럼 한국어 과정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다.

그동안 미국 주류신학교가 한인들에게 다양한 한국어 강의와 학위 과정을 제공한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어로 Ph.D. 과정까지 시작되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미국 신학계와 미국 교계가 그만큼 한국을 중요한 동반자로 인식하고 있다 볼 수 있으며, 언어 문제로 인해 학위 취득에 어려움을 겪었던 한인들에게 보다 상급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볼 수 있다. 또 이렇게 다양한 언어로 학위 과정이 개설되는 것은 미국 교계의 인종적 다양성을 고려한 것이며 다민족적인 신학 연구가 미국에서 이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한다.

또 한편에서는 점차 학생이 줄고 있는 미국 신학교가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언어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보기도 한다. 그러나 찬성론자들은 어차피 정식 신학교라면 ATS와 같은 인가체들로부터 교육의 질에 있어서 강도 높은 요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기우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한국어 과정을 제공하는 신학교들은 영어 강의를 한국인이 통역해 주거나, 미국 신학교에서 Ph.D. 학위를 받은 한국인 교수가 강의를 진행한다. 그런 점에서 이들은 모국어로 공부하기에 학업 성취도가 훨씬 높다고 주장한다.

김준형 기자

IS, 이라크 소수종교인 어린이들 고문·학살

이슬람국가(IS)가 이라크 소수종교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잔혹한 박해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7일 유엔 산하 어린이인권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IS는 기독교를 비롯한 소수종교인 어린이들을 참수, 십자가형, 생매장 등의 잔혹한 방식으로 살해하고 있다.

보고서를 작성한 전문가 중 한 명인 리네이트 윈터 박사는 “소수종교인 어린이들에게 가해지는 고문과 살해가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또한 “온라인으로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8살 정도 되어 보이거나 이보다 더 어린 아이들이 전사가 되려고 훈련을 받고 있다”며, 특히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어린이들

이 자살폭탄 테러에 동원되는 데 대해서 “이러한 어린이들 대부분이 자신이 죽게 될 것이라는 사실조차 알지 못한 채 임무를 맡는다”고 밝혔다. 윈터 박사는 이외에도 IS가 소수종교인 어린이들을 납치해서 노예시장에 팔고 있다며, 특히 여자 어린이들은 성 노예로 팔려 학대를 당하고 있다고 전했다.

손현정 기자

나라정비 타이어 대리점
GOOD YEAR
 유럽차전문점
 SMOG CHECK
 범퍼·도어·바디복원·무료견적·Rent Car
323.734.4881 | 월~금: 8am~6pm / 토: 8am~5pm | 1201 S.Western Ave, LA 웨스턴과 12가

천천히 다 돌려받으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3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가, 찰리 정
푸엔테 힐스 현대 HYUNDAI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제96주년 삼일절 기념 예배 및 이민 112주년 음악회

The 96th 3.1 Movement Commemorative Ceremony & The 112th Anniversary of the Korean Immigration to the United State of America Music Concerts

설교 피종진 목사

백지영 목사

남가주한인목사회 회장

음악감독 송규식 목사

지휘 피아노 진정우 박사

클라리넷 백철

소프라노 황혜경

테너 전승철

베이스 장진영

소프라노 이지영

컬로에스터주

필립스남성합창단

글로리아 찬양단

에버그린 합창단

March 1, Sunday, 2015, 6:30PM / Wilshire United Methodist Church
일서연합감리교회 435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남가주한인목사회
 Southern California Korean Ministers Association
 President, Rev. Esther J. Baek, Ph.D.
 후원 및 광고 문의 Tel: (323) 708-9191 • (213) 820-9414
 보내실 주소: 3921 Wilshire Blvd. #408, L.A., CA 90010
 Pay to Order: SCKMA

Ticket \$20
 문의 (323) 708-9191
 (213) 820-9414

후원
 LA한인회, 한국일보, 남가주한인기독교교회협의회, 남가주한인목사회, Solomon University, 크리스천비전, 크리스천윌리, 미주크리스천신문, 기독교, 기독교방송국, 크리스천해럴드, 크리스천투데이, 한인동포재단, Prodee University, University of Los Angeles, LA Evergreen Lion's Club, 남가주한인여성목사회, 임마누엘선교교회, 남가주한인장로협의회, 한미기독교건립회관, 미주여성교회, 한인기독교합창단, 이화교당, 캠프칼, 코랄레움, 숙명캠퍼스, LA 남성선교합창단, KADNO, The Good Shepherds 선교회, 미주 3.1여성동지회, 필립스남성합창단, 글로리아합창단, Korean American Young Artists



전광훈 목사가 LA에서 애국포럼을 열고 이승만 대통령의 일대기를 소개하며 미주 동포들도 영화화에 동참해 달라 부탁했다.

“건국대통령 이승만” 영화화 미주 동포들도 도와 달라

전광훈 목사 LA 방문해 애국포럼

한국의 대표적인 보수인사 전광훈 목사(청교도영성훈련원장)가 LA를 방문해 “건국대통령 이승만 영화”에 대해 설명하고 미주 동포들의 관심을 부탁했다. 그는 8일 오후 한인타운 내 한 호텔에서 애국포럼을 열고 이승만 대통령의 일대기에 대해 강연하면서 동시에 이 영화를 홍보했다.

그는 “어린 학생들이 미국을 증오하도록 가르친 전교조와 정치, 역사학계 등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좌경 세력들에 대항하기 위한 방법을 찾던 중 이승만 대통령에 주목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한국에서는 재향군인회, 애국단체, 보수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3천만 명이 관망하기로 약속했다”면서 “미주 동포들도 이에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다.

전 목사는 과거 한국교회 주요 교단의 장로들과 회동하고 관객 동원을 약속받았다. 당시 그는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 초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첫째로 자유민주주의,

둘째로 시장경제, 셋째로 한미동맹, 넷째로 기독교 입국론이었다”며 “대한민국을 기독교 국가로 세우는 것이 그의 중심이자 최종 목표였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날 LA 강연에서 그는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정신이 회복되면 남북은 통일된다”고 말했다.

당초 이 영화는 2015년 7월 개봉을 목표로 제작을 시작하려 했으나 감독을 맡기로 했던 서세원 씨가 사임한 후, 현재 새 감독을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행사를 주최한 이승만대통령기념사업회 캘리포니아 지부의 김봉건 회장은 “이승만 대통령을 영화화 하려고 앞장서는 전광훈 목사에게 고맙다. 미주 동포들도 적극 후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행사에는 약 70여 명이 참석했다.

한편, LA에 앞서 하와이에서도 애국포럼을 개최한 전 목사는 뉴욕에서도 프라미스교회에서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준형 기자



김희창 목사(좌)와 정호운 목사(우)가 제세 다스 씨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성결교회 연합해 인도교계 지도자 양성

말씀세운교회와 나성교회, 로고스교회 등 미주의 성결교회들이 연합해 인도 유학생 제세 다스 씨에게 장학금을 수여해 돕고 있다. 그는 미성대와 SRTCS 등에서 공부하고 있다.

그의 아버지 아룬 다스 씨는 중앙교회와 길갈교회 등이 한국 아신대로 유학보낸 바 있고 현재 인도성결교회 지도자로 사역하고 있으며 SRTCS에서 박사 과정 중이다.

황라연 기자



월드미션대학교 관계자들이 월드미션대학교와 LA 카운티 정신건강국 간에 체결한 한인 정신건강 예방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화자 소장, 송정명 총장, 임성진 부총장(앞줄 맨 왼쪽으로부터).

월드미션대-LA 카운티 정신건강국 한인 정신건강 예방 협력

→ 1면으로부터 계속 그러나 스틸라 김 사무국장은 “커뮤니티를 섬기는 마음을 갖고 참석 인원이 이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프로그램 진행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정루미 코디네이터는 “이 프로그램은 예방과 교육 차원이지만, 이 프로그램 후 치료나 상담을 원할 경우 전문 기관으로 연결시켜 주는 팔로업도 준비 중”이라 설명했다.

또 이 프로그램 자체는 LA 카운티의 그랜트로 진행되기 때문에 LA 카운티 내의 단체만 혜택을 볼 수 있다. 스틸라 김 사무국장은 “그러나 수년간 YNOT이 진행해 온 머시 상담 서비스를 통해서 타 지역에 계신 분들도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고 전했다. YNOT은 나성영락교회 아가페홀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서정민 프로그램 매니저는 “한인들은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이나 거부감을 갖고 있지만 통계에 따르면 70-80%는 치료가 가능하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정신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사전에 문제를 예방할 수 있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의는 323-488-5800로 하면 된다. 김준형 기자

이에 미주 한인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꾸준히 관심을 가져온 월드미션대학교도 LA카운티 정신건강국과 계약을 체결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정신건강에 대한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한인사회에 제공하게 됐다. 따라서 월드미션대학교는 앞으로 1년간 LA 카운티로부터 10만 달러를 후원받아 한인사회를 위해 보다 활발하게 봉사할 수 있게 됐다. 즉, 그동안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했던 많은 한인 이민자들이 이제부터는 월드미션대학교를 통해 교육과 워크샵을 무료로 제공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

김화자 교수(월드미션대학교 부속 한인기독교상담소장)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정신건강 예방교육에 초점을 둔 프로그램으로, 주로 정신건강 세미나, 소그룹워크샵, 정신건강 홍보자료 제공 등의 방법으로 서비스를 하게 된다고 한다. 외부 전문 강사를 초빙하기가 쉽지 않은 교회나 단체들에게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다만, LA 카운티 지원이므로 지역적으로 LA

카운티에 속한 단체들에게만 혜택이 주어질 수 있어서 아쉽긴 하다.

정신건강 세미나의 경우, 주제는 스트레스, 대인관계 기술, 중독, 교회에서의 정신건강 예방법, ADHD 자녀를 둔 부모교육, 우울과 자살에 관한 목회자 교육 등으로 구성된다. 소그룹 워크샵은 정신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배우고 실제로 연습할 수 있는 모임으로 진행된다.

주제는 자녀양육, 스트레스 관리, 정신질환자 가족 지지그룹, 우울증 지지그룹, 목회자들을 위한 정신건강 교육, 대인관계 기술향상, 이혼 가정 지지그룹, 대학생활 적응, 이민과 다문화 갈등해소, 정신건강 인식증진, 동료상담, 분노조절 등이다.

김 교수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 이용 비용은 일체 무료라고 한다. 또한 소그룹 워크샵의 경우는 신청 교회나 단체가 원할 경우 현장 방문을 통해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한다. 사전 신청과 예약은 월드미션대학교 부속 한인기독교상담소로 연락하면 된다. 문의는 213-738-6930다. 이영인 기자


남가주영광교회 테너 박인수 찬양 집회

한편, 이번 LA 카운티 정신건강국의 그랜트는 총 40여 신청 단체 가운데 18개 단체만이 선정돼 각각 10만 달러를 받았으며 한인 단체 중에는 YNOT과 월드미션대학교 부속 한인기독교상담소(KACC)가 선정됐다.

남가주영광교회(김철수 목사)에서는 지난 8일 저녁 한인교인들과 히스패닉이 함께 하는 찬양 집회를 은혜 가운데 마쳤다. 이 행사에는 서울대 음대 교수를 은퇴하고 현재 백석대 음대 석좌교수인 테너 박인수 교수와 그의 제자들 6명이 함께 했다.



남가주영광교회의 찬양 집회 모습



새빛한의원
Saevit Acupuncture clinic

323-735-6365 올림픽+하바드
3130 W. Olympic Blvd, Suite 380 Los Angeles, CA 90006

한방내과, 한방성형 & 통증클리닉

늘 환자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환자의 몸이 지니고 있는 “자연치유력”을 살려내는 새빛이 되겠습니다.

수술없는 한방 성형
치진턱선을 올려 젊음유지
아름다운 여인이 되어보세요.

한방감기 특별처방!!
(5일분-\$35)

약력 북경중의약대학졸업 전 한의과대학 교수역임(삼라한의원) 교통사고 · 각종보험 · 여행자보험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교회를 위한 실천적 복음주의 신학의 새로운 물결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100% 한국어
1-20 발급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혜택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박사과정 (한 주간, 인턴시브로 강의)
교육 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석사과정 (100% 온라인)
온라인 목회학 석사
신학연구석사
신학연구상담학석사



성경사역학 철학박사 (Ph.D. in Biblical Studies with Biblical Ministres Emphasis)
성경적 교회론을 바탕으로 교회 목양사역을 이론적, 실증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학위과정입니다.
입학자격 : M.Div. 학위 소지자



교육목회학 박사 (D.Ed.Min.)
일반 교육학 박사(Ed.D.)와 동등학위이며 기독교적 관점에서 교회교육을 다루는 학위입니다.
입학자격 : M.Div. 학위 + 교육학과목이수자 혹은 기독교교육학석사학위 + 신학과목이수자



목회학 박사 (D.Min.)
목회학 박사과정은 성경적 모델 연구를 통해 목회 현장에서의 실천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입학자격 : M.Div. 학위 소지자



온라인 목회학 석사과정 (M. Div. Online)
(온라인) 정규 목회학 석사(M.Div.) 과정은 본교만의 특별한 과정입니다.
입학자격 : 정규 학사 학위 소지자

사이트: www.mbts.edu/ko

연락처: 816-414-3754, ks@mbts.edu



장로회신학대학교 총장 김명용 박사가 미주장신대를 방문해 온 신학에 관해 특강을 전했다.

한국 기독교 130년 역사의 산물 “온 세상 위한 온전한 신학”

김명용 장신대 총장, 미주 방문해 ‘온 신학’ 특강

한국 장로회신학대학교 총장 김명용 박사가 한국 기독교 130년 역사의 경험적 산물로서 온 신학(Holistic Theology)을 주창하며 미주 한인신학계의 동참을 촉구했다. 여기서 ‘온’은 전부, 모두를 가리키는 순수 한국 말이며 김 박사는 “온 신학은 온 세상을 위한 온전한 신학”이라고 강조했다. 2월 4일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온 신학-21세기 통전적 신학을 향하여”란 특강에서 그는 기존 신학들의 문제를 먼저 지적했다. 현대 유럽신학은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아 초월적 차원에 대한 인식이 결여됐으며 이에 대항하고 있는 근본주의는 성경 텍스트에만 얽매어 문화와 역사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과정신학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이해함에

있어서 참고할 수는 있겠지만 과정신학의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 인생을 믿고 맡기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고 남미의 해방신학에 대해서는 “기독교론과 구원론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한국교회의 상황도 거론했다. 한국의 보수주의 신학에 관해 그는 “사실상 근본주의에 가깝다”고 말하면서 “박형룡 박사의 신학은 구원의 신학, 전도의 신학이지만 개인의 영혼 구원만 강조하다 보니 사회와 역사의 구원을 놓쳤다”고 지적했다. 여기서 그는 한국교회의 중요한 한 축인 오순절 계통의 신학에 대해서도 말했다. 그는 “방법론에 있어서 미신적인 요소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지만 조용기 목사의 삼중축복 신앙은 영혼의 신학과 삶의 신학을 결합해 냈다”

고 평가했다. 김 박사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부활 사건은 개인은 물론 시대와 역사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어마어마하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안병무 박사의 민중신학의 문제도 지적하고 넘어갔다. 그는 한 예로 “정말 민중이 구원의 주체인가? 부활은 예수의 의식의 부활이라 볼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그는 “민중신학은 속죄론 자체가 없다. 그리고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라고 단언했다.

그런 점에서 온 신학은 위의 신학들을 아우르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온 신학의 특징에 관해 그는 총 7가지로 정리했다. 먼저 온 신학은 삼위일체의 신학이다. 그는 “예수의 부활 사건에 정초(定礎)하고 있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믿는 신학으로 이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순간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다”라고 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과 은총의 신학이다.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신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온전한 복음의 신학으로 복음은 영혼과 육신을 모두, 개인과 사회·역사를 모두 구원한다. 네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신학이며 다섯 번째는 타인에게 일어난 주관적인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도 열려있는 대화의 신학이란 점이다. 그러나 그는 “구원은 오직 예수다. 종교다원주의는 거부한다”고 덧붙였다. 여섯 번째는 기도의 신학이다. 그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고 기적이 일어나며 개인과 사회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은 사랑의 신학이다. 그는 “사랑만이 사단의 역사를 이기는 힘”이라고 말했다.

김 박사는 “한국교회가 이제는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신학화하고 전세계에 널리 알릴 때가 되었다”고 했다.

김준형 기자



김인식 목사(웨스트힐장로교회 담임)



송만석 장로(KIBI 대표)

왜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하는가

KIBI 주최, 2015 이스라엘 성경 세미나

한·이성경연구소(Korea Israel Bible Institute; 이하 KIBI·대표 송만석 장로) 주최 2015 이스라엘 성경 세미나가 지난 9일 엘에이 두란노 서원 3층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김인식 목사(웨스트힐장로교회 담임)와 KIBI 대표 송만석 장로가 강사로 나서서 이스라엘 회복과 관련된 성경적 당위성과 중요성에 대해 강의했다. 1부에서 말씀을 전한 김 목사는 “이스라엘의 실패는 이방인에게서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됐다. 세계 각처로 흩어진 유대인들을 통해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충만해지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날까? 회복을 통한 구원의 결론, 부활의 축복이 있게 될 것이다. 평화의 기초인 예루살렘에서의 진정한 평화가 있는 새하루 새땅이 열릴 것이다. 그러려면 주인공인 주님이 오셔야 한다. 이스라엘이 충만해지면 주님이 오신다고 했다”고 말하며 “실제로 점점 더 많은 숫자의 유대

인들이 현재 전세계로부터 이스라엘로 귀환하고 있다. 이 귀환을 위해 물질과 기도로 섬겨야 할 것이다”라고 했다. 이어진 고 하용조 목사의 육성 설교가 담긴 동영상을 통해 유대인들의 이스라엘로의 귀환이 다시 오실 주님과 얼마나 밀접한가를 성경말씀을 통해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시간을 가졌다. 2부에서는 현재 KIBI 대표로 있는 송만석 장로가 세미나를 인도하며 “왜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성경말씀을 근거로 주님 재림과 유대인들의 이스라엘로의 귀환의 관계성을 아주 자세하고도 신빙성있게 다루었다. 이 세미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긴 시간 이어졌지만 이스라엘 회복에 관심있는 목회자 및 성도들이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열심을 보였다. 자세한 문의는 KIBI America로 하면 된다. ▲ 전화 213-388-1239 이영인 기자

세리토스동양선교교회 30주년 맞이 찬양 집회



집회를 마친 후 천관웅 목사(좌)와 방상용 담임목사(우)

올해로 창립 30주년을 맞이한 세리토스동양선교교회가 천관웅 목사 초청 특별 찬양집회를 열었다. 2월 6일에는 지역교회 찬양팀을 위한 워십스쿨을 열었고 7일에는 온 가족이 함께 하는 찬양집회로 은혜를 더했다. 마지막 8일에는 “뉴 제너레이션”을 향한 부흥의 메시지”라는 주제로 말씀 중심의 집회를 이어갔다.

천 목사는 밀알, 불을 내려 주소서, 겸손의 왕 등 인기 CCM을 불렀으며 현재 뉴사운드교회 담임목사이자 뉴 제너레이션 무브먼트 대표로 있다. 한편, 세리토스동양선교교회는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타코마 중앙장로교회 이형석 목사를 초청해 창립 30주년 기념부흥성회를 개최한다. 문소현 기자

Wings of Joy 찬양으로 복음 전해요



코이노니아선교회 'Wings of Joy' 찬양팀

코이노니아선교회(대표 박종희 목사·사진 뒷줄 맨 왼쪽)의 Wings of Joy 찬양팀이 찬양예배를 통해 지역사회 복음 전파에 나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을 갖는다. ▲일시: 2월 15일(주일) 오후 12시 20분 ▲장소: 남가주광영교회

(담임 정우성 목사) ▲위치: 1153 Valencia St. Los Angeles, CA90015 ▲문의: 213-598-0191 이영인 기자

보험료를 대폭 낮추었습니다!

가장 싼 자동차 보험 알선

음주운전자들을 위한 특별 자동차 보험

각종 사업체, 화재보험 및 모든 보험문의 환영

24hr 한국어 서비스

굿모닝 보험 213.761.9990 KEVIN YOO

믿을 수 있는 농협 한삼인 창고대 방출

농협 고려인삼 한삼인 서부총판 1-866-902-8282 www.korginseng.com

LA 지부: 3130 W Olympic Blvd #120 LA CA 90006 총판전화: 1701 W Orangefor Ave, Fullerton CA 92833 T.323.737.8888 (8월~11월) - 서부인삼부담 T.213.453.6624 (이리향마케팅팀)

100%홍삼농축액

100g 소비자가격 \$90	240g 소비자가격 \$185
2개 구입시 \$150	2개 구입시 \$320
3개 구입시 \$180	3개 구입시 \$450
4개 구입시 \$230	

홍삼순액

30포 \$120	60포 \$180	90포 \$255	120포 \$320
-----------	-----------	-----------	------------

오바마케어 벌금 면제기관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받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고후 9:12)

전국민의료보험시대, 어떻게 대비하시겠습니까?

기독교의료상조회는,

- IRS Section 501 (c) (3)에 의거한 비영리 기관인 로고스 선교회 소속이며
- 오바마케어 벌금 면제 기관인 Health Care Sharing Ministry로서,
- 기독교 신앙에 기초한 의료비 나눔 사역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남가주 북부지역: 엘에이 카운티, 샌버나디노 카운티, 벤추라 카운티 산타바버라 카운티

교회 및 단체, 소그룹 모임 세미나 접수받습니다!

의료 보험료가 부담스러운 한인들을 위해 "오바마케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자세하게 알려 드립니다.

남가주 북부지부 | 지부장: 김경호 목사 | 213.249.1161 | shelly.moon65@gmail.com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기독교일보 LA | 949.864.9162 | cmm6791027@gmail.com

※ CMM은 영리목적으로 운영되는 보험회사가 아니며, 비영리 Health Care Sharing Ministry(의료비 분담 사역)입니다.

기독교의료상조회 CHRISTIAN MUTUAL MED-AID (본부) 5235 N. Elston Ave., Chicago, IL 60630 | 무료전화 888-777-8226 | www.cmmlogos.org | info@cmmlogos.org

· 여승훈 목사의 목상칼럼

신앙이 있는가? 그렇다면 생활의 책임을 감당하라

미국 각 지역마다 한인 이민 사회에는 각종 한인 단체들이 있다. 이런 단체들은 대체적으로 한인 사회의 협력과 발전을 위하여 조직되었다. 필자는 이들 단체들에 대한 한인 교회들의 의식에 대하여 생각할 기회가 종종 있었다. 다수의 교회들이 지역 사회 단체들에 대하여 한마디로 “무관심과 무의식”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모든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목표로 하는 대상은 세상이다.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서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비전을 말한다. 이 비전은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게 된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다는 의미는 세상 속에서 산다는 것을 전제한다.



여승훈 목사
복음주의 칼럼니스트

오히려 줄어든 것이 몸무게가 불어나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한마디로 먹는 음식량과 운동량의 균형을 잃어 버린 셈이다.

프란시스 슈퍼 박사는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지난 세대의 기독교인들이 “신앙”과 그 밖의 생활 사이에 뚜렷한 구분을 설정하는 잘못을 범했다고 주장했다. 즉, 종교적 경험에만 일차적인 강조점을 두고 그것을 “상위의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밖의 사회적, 문화적, 법적인 관심사들은 그보다 하위의 것, 보다 열등한 것으로 간주하는 오류를 범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슈퍼 박사는 생활의 모든 영역이 바로 모두 영적인 것이며 그 모두가 통합된 전체라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한마디로 신앙과 생활의 균형성이다. 신앙과 생활을 비교하며 어느 쪽이 높은 위치에 놓여야 하는가를 말하는 것은 인식력의 균형을 이미 잃어 버린 것이다. 신앙과 생활은 우선 순위의 구분이지 어느 쪽이 높은가 혹은 낮은가의 문제가 아니다. 신앙이 없는데 생활이 있을 수 있는가? 반대로 생활이 없는데 신앙이 있을 수 있는가? 신앙을 통하여 생활의 열매를 볼 수 있고 생활을 통하여 신앙의 진의를 분별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신앙과 생활은 떼려야 뗄수 없는 하나의 동체로 연결되어 있다.

중세 수도원 운동이 낳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한가지 부인할 수 없는 부작용은 세상 속에서의 생활과 신앙을 철저히 분리했다는 것이다. 역사 가운데 수도원 운동이 가장 왕성하였던 때는 중세 시대일 것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신앙이 가장 타락하고 부패했던 때도 바로 그 중세시대였다. 이 부분에 대한 심도있는 평가가 지역 교회들에게 필요하다고 본다.

지역 교회의 역할은 우선적으로 회중들에게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성경공부와 훈련 프로그램들

이 제공되고 있다. 이와같이 신앙을 가르침과 동시에 교회는 지역 커뮤니티를 돌아보는 역할을 성실히 감당해야 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교회가 가르치는 신앙이 적용되어야 하는 현상이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으로부터 교회로 부르시기도 하시지만 그 부르심의 목표는 세상으로 다시 파송하여 세상을 섬기는 것이다. 파송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교회 안에서 배운 신앙적 진리들을 의지하여 부패하고 어두운 죄악된 세상에 빛과 소금같은 영향을 주어야 하는 책임을 지니고 있다.

눈을 열어서 돌아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처해 있는 현실 속에 감당해야 할 책임들이 산적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다만 무관심과 침묵으로 지나치다 보니 감당해야 할 책임이 보이지 않을 뿐이다.

지역마다 각종 단체들의 불협화음을 종종 듣게 된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 소위 적지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소리없이 회피와 침묵으로 일관 하려는 경향이 있다. 결국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을 관망하게 된다. 이런 경우 나만 깨끗하고 나만 도덕적이고 나만 옳은 것 생각하면 된다는 나만의 신앙을 지키면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그렇다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는 세상 속에서의 생활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바로 이 부분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상 속에서의 생활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일이며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몫이 아니겠는가? 회피와 침묵이 최고의 선이라고 생각하는 개념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서는 분명히 맞지 않는 발상이다.

그리스도인들의 회피와 침묵은 잘못된 길을 걷는 사람들 못지 않게 용서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제 신앙을 책임있게 감당해 내는 기독교적인 헌신이 이 사회에 꼭 필요하지 않을까? 세상에 대한 책임은 세상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자.

W M S

WISDOM MISSION SCHOOL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학교
학생을 위한 학교 / 학생이 변화되는 학교



WMS로 와서 공부할 의욕과 성적이 회복되었다

본지는 학업을 포함해 청소년기에 방황하던 학생들이 WISDOM MISSION SCHOOL(WMS, 지혜 선교학교)에서 어떻게 변화되고 명문대에 진학했는지를 알려주는 간증을 시리즈로 보도하고 있다.



Daniel Kim 군
고려대학교

WMS는 1994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20년 동안 약 4500명의 학생들을 가르쳐 Harvard, Yale, Stanford, UC Berkeley 그리고 의과대학 등 미국의 여러 명문 대학에 입학시켜 온 Han Sam SAT 학원이 모태다.

이 학교는 이 시대에 적합한 혁신적인 교육 방법을 실천하여 하나님께서 각 학생들에게 주신 재능을 최대한 발견, 개발하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인재 양성을 위하여 세상에 진출시키는 데에 그 교육 목적을 두고 있다.

매일 매일 혼란하고 우울한 삶을 살고 있었다. 나의 인생의 바닥을 칠 즈음에 WMS에서 공부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WMS는 나의 생의 결단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었다. 학교 생활을 하면서 나는 서서히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교장 선생님과 교사들의 사랑과 관심어린 교육으로 인해 공부할 의욕과 성적이 회복되어서 여러 명문대학의 합격 통지를 받았다.

WMS에서 나는 어느 학교에서도 경험하지 못했던 차별되고 개인적인 사랑과 관심어린 지도를 받았다. WMS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목사님과 교사들에게 감사한다. WMS와 후배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기원한다. <다음 호에 계속>

학교 문의) 5851 Newman St, Cypress, CA90630
714-995-1900 / www.wisdommissionschool.com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호, 이원삼,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망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Payable to order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선교사님들께 GO!전도지를 보내세요!

28개 언어로 이미 730만부 이상 인쇄된 강력한 복음의 도구



조영장

- ANC은누리교회 전도사역담당 12년 역임
- GO!전도집회/세미나 강사 (전국 한인교회, 멕시코교회)
- GO!전도 추천도서 출판: "나가자, 선포하자, 승리하자"
- GO!전도지 28개 언어로 730만부이상 인쇄
- GO!전도사역원 책임강사

GO!전도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담대하게 전도하는 미주한인교회의 전도사역에 의해 시작된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이미 수백만명의 영혼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축복을 허락하신 미주한인교회 현 상황에 꼭 필요한 강력하고 복음의 열매가 풍성한 새로운 전도전략입니다.

GO!전도사역원, Los Angeles, CA
www.GoNowSave.com
Tel: (661) 575-7744

다인종 영혼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GO!전도지



- (1) 한국어 (2) English (3) Spanish (4) 일본어 (5) 중국어 (6) Arabic (7) Burmese (8) Cambodian (9) Filipino-Tagalog (10) French (11) German (12) Haitian (13) Hindi (14) Indonesian (15) Italian (16) Javanese (17) Polish (18) Portuguese (19) Punjabi (20) Russian (21) Swahili (22) Telugu (23) Thai (24) Turkish (25) Ukrainian (26) Urdu (27) Vietnamese (28) 2개 언어 전도지(영어 & 스페니쉬) (29) 2개 언어 전도지(한국어 & 영어) (30) 3개 언어 전도지(영어, 스페니쉬 & 한국어) (31) 어린이전도지(영어 & 스페니쉬)

당신도 미국땅의 다인종들을 구원하는 전도자가 되세요!

이제야말로 우리 주변의 수많은 복남미 대륙의 다민족 영혼들에게 복음의 핵심이 들어있는 강력한 GO!전도지를 들고 활짝 웃으며 다가가 기쁨과 담대함으로 구원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미주한인교회의 목사님들과 전도사역자들에게 희소식!

목사님들과 전도사역자들에게 FREE GIFT!

다음 내용을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GO!전도지 샘플과 GO!전도현장의 생생한 감동의 책, "나가자, 선포하자, 승리하자"를 FREE로 보내드립니다. Email: sync@GoNowSave.com (보내주실 내용: 목사님 이름, 교회 이름, 교회 주소, 우송 주소, 전화번호)

GO!전도집회/세미나를 추천합니다!

2일간의 GO!전도집회/세미나를 통해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감격을 정립/회복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애타는 마음을 품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성숙한 신앙인들로 섬기는 교회의 부흥에 앞장서는 열정적인 신앙인들로 살아가도록 말씀과 복음의 현장에서 체험케 하신 수많은 놀랍고 감동적인 간증들을 통해 도전하고 훈련합니다.

여호와 닛시의 교회

출애굽기 17:8~16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1. 하나님 명령에 절대순종

광야 이스라엘 교회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가나안을 향하여 전진하는 과정에서 신광야를 떠나 르비딕까지 왔으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기회와 기도할 제목을 주셨는데도 그들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 행보가 아니었고 사람 모세를 따랐던 입장으로 기도할 생각은 아니하고 모세에게 노골적인 원망과 불평을 털어놓고 포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돌을 들고 모세를 때려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들의 불평은 이구동성으로 “애굽 땅에 우리의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와서 우리와 우리 가족이 목말라 죽게했더니”하면서 자기네들을 인도하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믿지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사람 모세를 불평하고 포악을 했습니다. 모세는 당황했습니다. 자기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자기를 통하여 그 백성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항의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출17:4)

이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렘 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출17:5-6)하십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이가 모세가 아닌 모세를 불평하여 쓰시는 하나님임을 증명하셨고 그들이 인도하심을 받고 나아가는 그 길에 그들의 삶과 소망의 보증이 되어주시는 분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확인시켜 주신 바가 되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교회생활을 통하여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당하는 어려움은 여러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그 어려움을 분명히 분별하시되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순종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길에서 당하게 되는 입장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즉시 하나님의 방법,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지 않고 한 교회의 직분자로서의 의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지시하시지도 않으시고 동행하신 일도 없는 자기 욕심에 목적을 정하고 자기 맘대로 열길로 빠져나가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욕심대로 서둘러 가다가 실패를 만나게 되었을 때는 그 일에 대한 회복이나 해결을 기도할 것이 아니라 불신앙을 먼저 회개하는 지혜가 앞서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는 분별이 애매하여 혼돈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언어맞고 있으면서도 왜 언어맞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면 계속 언어맞을 소지가 다분하고 그 인생은 교회 다니면서도 되는 일이 없고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상처투성이

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들은 체험은 많이 했지만 영감적 신앙을 생활화 하지 않았기 때문에 타락한 이성이 처신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생각, 말, 행동이 하나님과 어긋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7:7절에 “우리중에 여호와께서 계신가 아닌가”하는 불신앙적인 말로 인하여 그 백성들은 엄청난 쓰라린 고통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체험으로 교육시키시고 확인시키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여호와 닛시라는 제목으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2. 하나님 절대주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반석에서 난물을 마시고 그곳 이름을 맛사라 또는 프리바라 불렀을 그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불드셔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도록 만드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는지, 아닌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창세기 36:12절에 보면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답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했습니다. 즉,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입니다. 에서의 신앙은 팔족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가별게 여긴 사람입니다. 그는 이성 자율주의적 신앙이었습니다. 이로써 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아말렉은 에서의 바리새인적이고 겉치레뿐인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신앙 족보의 후손이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 교회가 어느 신앙노선에 서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정신적인 수양의 방편으로 교회 다니면서 생활은 에서와 같이 자기 자신에게 무한한 가능성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너도 하면 된다고 하는 자기 의지적인 자율주의적 신앙은 하나님이 불신앙자보다 더 악한 대상으로 취급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절대주의, 신율주의라고 하는 하나님 법이 내 모든 생애의 원칙이요, 기준이라고 믿어 사는 신자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치시고 자녀 삼아 책임지시고 보살피시며 가꾸시고 하늘나라까지 데려가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장되지도 않았고 훈련된 정예군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나그네들입니다. 그들은 밤낮으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나안을 향하고 있는 지친 나그네들일 뿐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아말렉이 생각할 때는 정말 쉬운 상대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전술, 전력에 의해 자신만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아말렉군을 중무장하여 가나안을 향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쳐들어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이스라

엘이 승리함으로써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심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시편 2:1-3절에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虛事)를 경영하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여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합니다. 이에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시 2:4)하십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성령을 받은 자를 말하며 그는 곧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자녀된 자를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없애버리신다고 하십니다. 민명기 25:17~19절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네 뒤에 떨어지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땅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네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찌니라 너는 잊지 말찌니라”합니다.

3. 조직의 계통질서를 지키라

세상조건을 초월해서 영적사명의 위치에서 자기 직분의 구실을 잘 감당하는 교회야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장로는 장로의 위치에서 장로 구실을 해야 합니다. 장로라는 직분을 가지고 장로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장롱 취급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장롱은 모든 것을 쟁겨 넣는 목적밖에 없습니다. 모든 직분자들 모두가 제 자리를 지켜 그 몫을 잘 감당해 나가는 교회야 하나님이 불들어주시실 가치가 있고 기대가 확실할 때 하나님

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닛시의 교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그 노후에 다리가 후들거리고 주저앉을 때까지 두 팔을 있는 힘을 다하여 뻗쳐 울림으로 이기게 되었고 그가 기진맥진했을 때 아론과 훌이 그의 오른편과 왼편에서 힘을 다해 해가지도록 그의 손을 붙들어 울렸으며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대로 나아가 힘껏 싸웠기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스러운 승리를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많은 대적과 훼방과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세월동안 교회를 지나치게 대적하고 훼방하고 행패했던 자들이 일곱 명이나 젊은 나이에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죽이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주시나 회개치 아니하고 끝까지 악으로 대적하다가 하나님의 치리하심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교회는 여호와 닛시라는 체험을 바탕으로 승리하는 교회로 발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15절에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닛시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해주신 우리 승리의 깃발은 바로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승리의 깃발입니다. 이 땅 위에 교회들이 세워졌다가 간판을 내리고 흩어지는 경우들을 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애쓰시며 가꾸시는 중이거나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신 사람이 다른 목적으로 잘못 세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과 같이 신율절대주의, 영감적 체질신앙으로 말씀 보수적인 신앙을 올바르게 가꾸어 교회가 조직을 통한 기능이 계통질서를 지키고 하나님이 보실 때 소망적인 교회라고 인정받게 되면 얼마든지 원수, 마귀들을 굴복시켜 주실 것이고 승리하는 교회로 여호와 닛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 V 한국 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크리스천 투데이	7면 설교 / 동영상 · 인터넷신문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경복 기독 신문	3면 설교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 V 미국 방송 설교		라 디 오 미국 방송 설교	
COX TV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워싱턴DC.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주말 오전 7시 / 동영상 설교 제공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190 시카고 기독교방송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AM1310 LA 미주 복음방송
기독일보	5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 기독교방송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크리스천 헤럴드	7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2015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edu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호라이즌대학교
 학위취득 과정 및 학생모집 학과
 학사: 신학/ 상담학
 석사: 신학/ 목회학/ 상담학
 박사: 신학/ 상담학
 CA 주정부 교육국 BPPE 인가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520 S.La Fayette Park Pl. #411 LA, CA 90057
 Tel. 213) 736-5000 Fax. 213)736-5115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 20회원 인준
 특장: SEVIS I-20 발행/ 선교사 정착금 및 각종 장학제도 있음
 학사과정: 성경학 학사(B.A. in Biblical Studies)
 석사과정: 목회학 석사(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Master of Art in Religion)
 2660 W.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미주대한신학대학
 개혁주의에 기초한 성경해석과 성경에 대한 종합적 사고능력 배양,
 교회 역사와 신학에 대한 구속사적 안목의 정립,
 말씀을 실천하는 신실한 주의 종 양성,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적인 리더십의 준비.
 1325 12th Ave, Los Angeles, CA, 90019
 Tel. 323-731-9819

솔로몬 대학교
 땅끝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28:18-20)
 총장: 백지영 박사 부총장: 브랜트 프라이스 박사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AMERICAN BAPTIST SEMINARY OF THE WEST, BERKELEY, CA
 L A Campus 목회학 박사과정
 (매년 1, 6월 통역제공, GTU 와 ATS 정회원)
 Dr. Hyo Shick Pai: drhyopai@gmail.com
 ABSW President: Dr. Paul Martin www.absw.edu

통신신학 *한국상고사(한단고, 규원사화)
 - 신학(학사, 석사, 종교철학박사 전공) .
 - 한국상고사(고조선, 고구려, 백제, 신라, 발해) 전공은 일제 식민사학 (단군신화)이 아닌 전통역사사 학단고교, 규원사화 중심으로 학사, 석사, 박사 단계 완성 가능함.
 *본교는 캘리포니아 Education code #94874 비영리종교법인(연방 501C3)에 의해 설립된 교육기관으로 한국로교단 미주총회에서 남녀 목사안수 가능함.
 *아메리칸 중앙대학교 중앙신학대학원 www.acus.edu.us
 mail, 379 Loa drive #301 L.A, CA 90017 paul Lim : 213-908-8986
 email : acus-edu@hotmail.com / acuslimjeongseul@gmail.com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감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사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사장 김연도 박사(D.P.M.) 총장 김근수 박사(Th.M., Ph.D.)
 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100 e-mail: info@chongshinusua.edu
 www.chongshinusua.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다기독교박사(BA),목회학석사(M.Div),상담학석사,선교학석사,ESL,TESOL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류종길 박사, 이사장:조종관 목사
 1818 S. Western Ave, Suit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 Fax (323)642-0307
 www.aeu.us / aeumaster@gmail.com

크리스천 자녀를 위한 골프 . 성경교실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와 성경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성경공부를 통해 영성과 인성교육을 하며, 골프를 통해 집중력과 체력향상을 시켜줍니다. 귀한 자녀에게 이 두 가지를 함께 가르치는 전문인에게 믿고 맡겨주십시오. 달라지는 자녀의 모습을 보게 되실 겁니다.

* 픽업가능

▪ 성인을 위한 무료 골프교실도 오픈합니다. (성경공부 필수)

▪ 문의 : 최 제이콥 Professional (310-598-0746)
▪ Email : mrjacob601@hotmail.com

<최 제이콥>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New Bridge University Golf Management
The Reformed University 대학원
Dae Han Theological Seminary, U.S.A 선교학 Ph.D



세금무료상담

확실히
줄여드립니다!!

이정운 CPA

- 개인 및 사업체에 맞는 절세
-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서비스 및 고객 데이터베이스 구축
- IRS, FTB, SBOE, EDD 세금문제해결
- 저소득층 세금환불(ETC)
- TIN(개인납세자번호)신청 및 공증
- FAFSA, 소셜연금, 해외자산신고 상담
- 정확한 서비스와 저렴한 수수료

Tel (213)387-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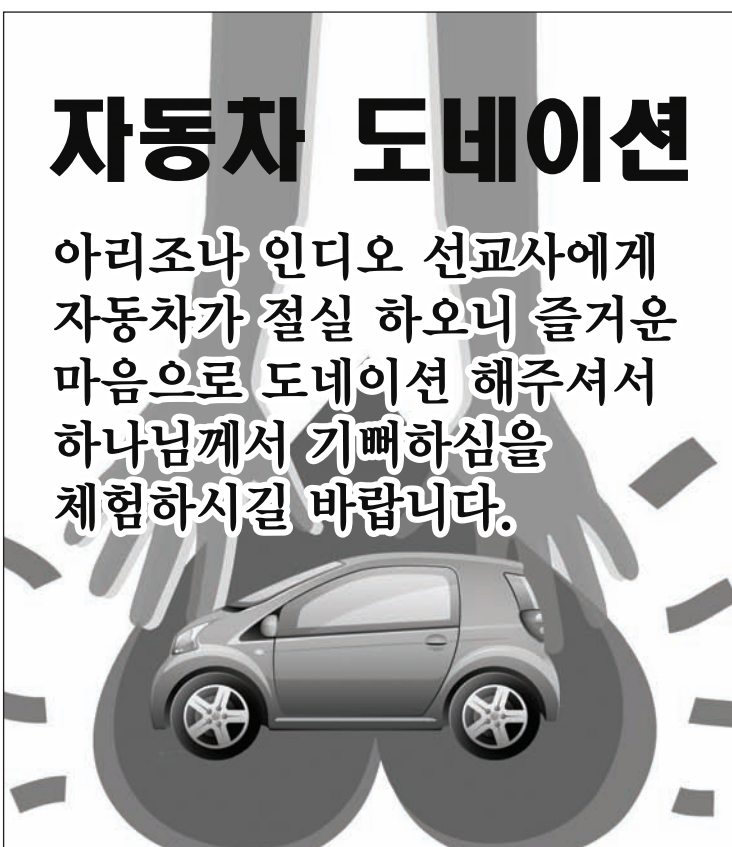
www.cyleecpa.com

3130 Wilshire Blvd. Ste 405, Los Angeles, CA 90010

Tax season 연장근무!!
(평일 9 am - 8 pm, 토요일 10 am - 5 pm)
(무료주차!! Free Parking!!)

자동차 도네이션

아리조나 인디오 선교사에게 자동차가 절실 하오니 즐거운 마음으로 도네이션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눅 6:38>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Tel. 424 - 220 - 0360 (전 에스더 선교사)
213 - 718 - 1512

예수, 세례요한, 헤롯 안디바스



민종기 목사
초현선교교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롬 13:1). 이는 로마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편지 내용의 일부이다. 이 구절로 정치인들은 목회자나 성도에게 “복종”을 가르쳤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특수한 상황 속에서 기독교인이 반정부 투사로 오해받기를 원치 않았을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황제숭배를 거부하는 기독교인들이 공공연히 국가의 권위에 불복하는 것으로 비쳐져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하였을 것이 분명하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생각은 분명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부터 나왔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 요한이 어떠한 모범을 보였는지를 그는 분명히 알았을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예수님과 세례요한이 주로 활동했던 갈릴리 호숫가는 주로 헤롯 안디바스의 영역이었다.

기원전 4년부터 서기 39년까지 다스렸던 헤롯 안디바스는 헤롯 대왕의 아들로서 갈릴리와 베레아의 분봉왕이었다.

그의 영역에서 세례 요한은 선지

리를 빼앗긴 나바테안 왕 아레타스 4세의 딸인 페트라로 도망간다.

아레타스 4세는 안디바스를 공격하여 36년 그를 패배시킨다. 39년 그는 로마 황제에 의하여 프랑스로 유배된다. 백성들은 요한의 살해에 대하여 심판을 받았다고 믿었다.

이렇게 요한이 감옥에 갇힌 채로 있는 동안 예수는 요한을 살려주지 않는다. 요한은 ‘예수님이 오신다고 한 메시야가 맞느냐’고 제자를 보내어 질문한다. 예수는 자신으로 인하여 시험에 들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시면서, 자신의 메시야 사역을 구약을 인용하여 확인하신다. 의인을 죽인 왕 헤롯 안디바스에 대하여 예수님은 직접 징계의 체책을 들지는 않았다.

정치가는 종종 하나님의 정의의 기준에 심각하게 미치지 못하는 경향이 많다. 예수님은 그 허물 많은 왕을 대항하여 군사적으로 저항하지도 요한을 구원하지도 않는다.

예수님은 내 나라가 폭력적인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신다. 그는 열십당의 혁명을 선택하지 않고 십자가를 선택한다. 이 십자가의 방법은 관원에 대한 인정과 존경과 납세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설명이다.

자로 활동하였고, 예수님은 갈릴리 사역을 감당하셨을 것이다. 헤롯 안디바스는 요한과 예수님의 활동에 많은 신경을 썼을 것이다.

백성의 지도자로 추앙을 받던 세례 요한은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공무원, 군인, 평민, 종교인들 모두가 주님께 나와 죄 사람의 세례를 받으라고 한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던 세례 요한에게 헤롯 안디바스도 질타의 대상이 되었다. 자기 형제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은 것은 간음이고, 근친상간이라고 말했다.

이 일로 세례 요한은 투옥된다. 세례 요한은 야심만만한 헤로디아의 사주를 통하여 안디바스에게 죽임을 당한다. 헤로디아에게 왕비자

불편한 예수 (II)



제이슨 송 교장
새연약초중고등학교

이 시대 청소년들은 예수님을 불편한 존재로 여기기에 이에 대한 명쾌한 답을 제안하지 못하면 한 세대를 잃어버릴 수 있다 생각한다.

십대 아이들의 아버지로서, 또 청소년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그리고 여러 기독교 학교의 설문 조사 자료를 근거로 해서 왜 청소년들이 예수를 (그리고 더 나아가 기독교 자체를) 불편하게 인식하는지 시리트로 살펴 보고자 한다.

지난 번에는 청소년들이 기독교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갖는 10가지 이유를 알아 보았다. 이제부터 그 10가지 이유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보려 한다.

1. 교회 참석이 불편하고 재미가 없다

청소년들은 주중 예배, 주일 예배, 기도 모임, 새벽기도회, 수련회, 단기 전도여행, 성경 공부 및 교회의 여러 모임과 행사를 불편하게 여긴다. 단도직입적으로 표현하자면 교회가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요구하는 곳이라 생각한다.

특히, 인터넷으로 예배나 메시지를 언제든지 쉽게 시청할 수 있기에 직접 교회에 가는 것이 번거롭다고도 생각한다. (이점은 청소년만의 이슈가 아니라 청장년도 느끼는 이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첫째,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며, 둘째, 변하는 이민 사회내(內)의 교회의 기능이 무엇인가이다. 신학적인 교회의 정의보다 몇가지 현실적인 질문을 생각해보자:

1. 각 교회 담임목사님이나 리더들의 교회론/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2. 과거 이민사회내(內) 교회의 특정 역할은 무엇이었나?
3. 본질은 타협하지 않되, 이민 교회의 역할기능이 이민 2, 3세를 위해 조절할 필요가 있는가?

교회란 특정 건물이나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교회에서만 하나님께 진정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매우 많다. 본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며, 교회에 십자가를 크게 세우고 쾌적한 교회당을 건축·마련하는 것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 철칙 같이 믿는 사람도 의외로 많은 것이 현실이다.

로 말씀을 잘 가르치는 목회자와 교사가 교회와 성도를 섬겨야 할 것이다. 아무에게나 이런 일을 맡겨서는 절대 안된다.

그런데, 교회내 교육부의 현주소는 어떠한가? 학생들 영성을 책임지고, 맡은 사역에 올-인하는 교사와 전도사, 목사가 있는가? 전도사나 신학생이 잠시 거쳐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취급하지는 않는가? 정말로 차세대 리더들을 키우려면 교육부 재정을 늘려 투자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말씀의 깊이나 질(quality)보다 학생들과 잘 어울려 주고 숫자를 늘리는 사역자를 더 높게 평가하고있지는 않은가? 부모가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 학생들이 따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전통이 되어버리지는 않았나? 이 외에도 구체적으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많아서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을 정도이다.

청소년은 교회가 재미없는 곳이라 여긴다. 매번 거의 똑같은 형식으로 반복되는 예배는 매순간 새로운 내용을 접할 수 있는 스마트폰 시대 청소년들에게는 정말 지루한 곳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물론,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그저 세상의 놀이문화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다. 많은 대형교회에서 본질적인 예배/사경회/부흥회에서 콘서트나 특정 프로그램을 시행하다 실패했다.

여기서 필자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균형이 잡힌 양면의 접근이다. 즉, 이 시대 청소년들이 가족이나 교회보다 또래와 세상 문화에 더 관심을 갖고 있음을 인정하되 (그렇기에 이들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도구-영상, SNS, email, 등-을 사용해야 한다), 이들에게 맞는 도구를 통해 본질적 내용 (말씀, 묵상, 기독교 세계관, 신본주의, 등)을 다뤄야 한다는 말이다. 이렇게 하려면 교회에서 디지털 콘텐츠와 SNS를 잘 활용할수있는 문화 사역자를 키워야 할 필요가 있으며, 외부 강사 및 전문가의 도움도 필요할 것이다. 무료 유튜브 비디오만 사용하지 말고, 재정을 투자하여 기독교 전문가들이 제작한 질높은 영상물을 사용할 필요도 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고 있듯이) 새로운 도구를 사용하여 변함없는 성경의 진리를 가르쳐야 한다는 말이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세상에서 느끼고 체험할 수 없는 말씀과 기독교 문화의 진국을 맛보도록 도와줘야 한다.

<계속>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 세트

- 좋은 흙에서 나온 식물성 원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믿을 수 있습니다.
- 체내 흡수가 빠르므로 복용 효과가 높습니다. (1-3일 내)
-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혈액 내에 영양을 공급하여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함으로서 무슨 병이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 세계 특허(특허번호 51281391) 공법으로 제조되어서 복용 후 체내 흡수율이 다른 제품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흡수율 92-96%)
- 셀라케어의 모든 제품은 남녀노소 모두 복용가능합니다.

유태인이 만든 특수영양제 - 셀라케어
SELLA CARE®



혈액 해독 / 기력회복 천연 항염, 혈관 탄력 심장, 뇌 혈전용해 뼈, 골수 영양공급

권장소비자가격: \$184/병

눈으로 직접 확인 하세요!

병치료와 장수의 시작은 피를 맑게 하여 알칼리화 시키는데 있습니다



셀라케어 제품은 6년 경작후 1년 휴지기를 지키면서 유기농으로 재배한 작물을 엄선하여 우리몸에 흡수가 잘 되는 알칼리성으로 만듭니다. 많은 영양제중 M3만이 알칼리 테스트(PH Test)에서 최고 품질 보라색으로 변합니다

셀라케어 효능사례

무슨 병에 걸렸는지 큰 효과를 줄수 있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발작, 자폐증, 무감각증	시력장애인으로 태어나 무감각증으로 폐인 상태, 셀라케어 복용 후 완치되어 등산도 다닐 정도입니다. 방세환(20세, 원주) 010-5599-2633
대장암 말기	대장암 말기에서 간으로 전이된 상태, 2달 복용후 정상으로 회복됨
원자력 피해	일본 2세 남자아이 원자력 피해로 말 못하고 걷지 못했으나 M3 세트 2달 복용후 말하고 걸을 수 있게 됨. 토요타 빅토리아 8180-1339-2069
심한 부정맥, 해소, 천식	심장수술을 받은 분으로 3일 복용 후 상태가 많이 호전됐음. 30년이상 기면지 천식과 심한 부정맥으로 고생했으나, 셀라케어 복용 후 정상으로 돌아옴. 박육현(77세)
유방암 완치 후 모유수유	오른쪽 유방암으로 간 폐, 골수까지 전이된 상태에서 두 달 동안 많은 양의 M3세트를 주스에 같이 복용 후 심한 호전 반응 겪고 완치된후 4년뒤 늦둥이를 출산하여 지금 모유수유를 할 정도로 원래 양호연(42세, 엘에이) 213-215-6991
간질과 약물중독	16년동안 하루에 몇번씩 간질을하여사회생활을 제대로 못했는데, 지금은 직장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함. 간질중독도 호전됨. 복용 후 190kg가 125kg로되고 시력, 피부, 머리카락 좋아짐. 오윤희(26세, CA가디나) 213-604-1992
직장암, 대장암 말기	처음에 수술이 불가능하였으나, 복용 후 대장속에 있었던 숙변이 피와 함께 쏟아지면서 몸이 있던 큰 혹들이 줄어들며, 복용 후 6개월 후에는 깨끗하게 치료됨. 이순남(77세, 엘에이) 323-533-0624
심한 아토피	6년동안 심한 아토피로 고생이 심했는데 복용 1개월 후부터 피부가 깨끗해지며 잠도 잘 자고 키도 많이 커졌고 정신적으로 많이 안정이 되었음. 에스터 양(10세, 산타모니카) 213-215-6991
대장암	대장암 초기관절을 받았고 병원 치료를 받던 중 M3세트를 먹기 시작, 수술하지 않고 복용 석달 후 완치 되었음. 한국 010-7928-7986
비만, 우울증, 야뇨증	어려서부터 심한 비만으로 11세에 체중이 190파운드 였으나 셀라케어 복용 2달후부터 살이 빠지기 시작 하면서 체중은 130파운드로 유지됨. 우울증, 야뇨증이 깨끗하게 치유 되었음. 샘 양(15세, 엘에이) 213-219-7746
심한 당뇨, 고혈압	30년된 고혈압과 당뇨로 매일 약을 먹던 중 M3세트 복용 후 4개월이 지나면서 혈압과 당뇨가 정상으로 되었고, 절단직전의 다리위 온몸의 검은 피부가 회복되었음. 오일동(52세, 가디나)
심한 알러지, 우울증, 불면증, 녹내장	코막힘과 콧물과 밤을 새우는 고통 중 M3세트 복용3일 후 완치, 심한 심장 압박과 하지정맥까지도 치유됨. 정수지(61세, 베버리 힐) 310-800-8242
심장병, 담석, 전립선	10년 동안 고혈압과 비만과 잦은 빈뇨와 다리가 저려서 고생했는데 셀라케어 복용 후 약성 빈혈과 혈압이 정상으로 되고 담석으로 인한 고통도 사라졌습니다. 마사루(58세, 부산)
심한관절염, 변비, 생리통	손가락이 심하게 아파 소염 진통제로도 잘 안들었으나 셀라케어로 통증이 가셨고 변비도 해결 되었으며, 큰 딸의 생리통과 우울증도 사라졌음. 황정희(39세, 팔로스버디스)
중풍마비, 당뇨, 고혈압	15년 동안의 고혈압, 당뇨를 딸의 권유로 셀라케어 복용 후 7개월 만에 고혈압, 당뇨, 왼쪽 마비도 정상 회복됨. 민현자(65세, 방배동)
등 수술후 심한 손떨림	바이러스 침투로 인한 등 수술 후 8년 동안 심한 손 떨림으로 고생중, 복용 일주일 후 부터 흔자 받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손 떨림이 없어지고 안정됨. 박성섭(63세, CA 토크스)
자폐증	가족과 의사 소통이 되지 않으며 손발이 항상 차고 손발끝이 너무 같이 딱딱 했는데 복용 열흘 후 부터 손발이 따뜻하고 부드러워 졌으며, 가족과 의사 소통이 가능 해지고 상태 좋아짐. 정대진(16세, 엘에이)
체장암 말기	60세 중반에 가장 힘들다는 체장암 말기로 병원에서 두 달 시한부 선고를 받고 M3세트를 복용하고 2개월이 지나면서 부터 기적적으로 체장의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왔음. 피터 리(65세, 엘에이)
폐암 말기	50세에 찾아 온 암으로 고통 받던 중 복용한지 한달 20일 후 부터 암 수치가 3.5cm에서 1.2cm로 작아지면서 좋아지기 시작하여 5개월 후에는 암 크기가 30%로 작아졌음. 이정수(51세, 서울)
자가 면역 질환	희귀병으로 부종, 부분적인 감각 상실, 지속적인 중기, 결국은 폐가 굳어지는 불치병으로 M3복용 3일 후 피검사 결과 혈액수치 정상으로 나온 후 한달 복용 후 모두 정상으로 돌아옴. 미세스 락(뉴저지)
모유 아주적음, 심한부종	모유수유가 안되어 애를 먹었는데, 셀라케어 복용 후 모유가 더 잘 나오며 심했던 부종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으며, 신생아기도 변을 잘 보고 잘 자고 푹들해졌음. 이은영(32세, 세리토스)
혈액투석	1주일에 3번씩 2년 6개월동안 혈액투석 해 왔는데, 2달 복용 후 혈액투석 횟수가 점점 줄었고, 지금은 혈액투석을 아니함. 장영순(53세, 한국 서울)
중풍으로 인한 마비	심한 중풍 후유증으로 고생하며 인생 말년에 찾아온 병으로 비관하며 졸다는 약을 찾던 중 M3세트를 알게되어 복용 한지 3개월 후 부터 서서히 중풍으로 인한 마비가 풀려 너무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음. 김정훈(76세, 한국 대구)
임파선암	2년전 임파선 암 수술했음. 셀라케어 복용 후 한 달 20일만에 왼쪽 가슴 유두에서 피고름이 나왔으며, 지금은 키모를 받지 않아도 될 정도로 회복 됨. 조인숙(53세, 시카고)
갑상선암과 심한 관절염	13년동안 심한 관절염으로 신문 한장도 돌기가 어려웠고 밤에는 불면증으로 고생. 셀라케어 한달 복용 후부터 심했던 통증이 차차 가라 않고 갑상선도 정상으로 회복 되었음. 김영연(39세, 다이아몬드 바)
전립선암과 부정맥	소변이 힘들고 밤에는 7번씩 소변을보았으며 심한 부정맥으로 고생 하였음, 복용 2달만에 밤에 화장실 가지 않게 되고 혈액 검사 때마다 혈관 찾기가 힘들었으나 지금은 혈액 흐름이 원활하여 계속 복용하고 있음. 필립 남(72세, 벨리)
파킨스 병	3일 복용 후 몸이 가벼워지며 계속 복용하면서 자유로운 외출과 찬양 사역자로 다시 일할 수 있을 정도로 되어 지금은 외출을 두려워하지 않게 됨. 브라이언 김(70세, 버지니아)
반신불수	목사님 이었고 5번의 뇌수술 후 반신불수가 되었는데, 복용 2개월만에 지팡이도 버리고 걸어도 되고 있음. 왼쪽 마비도 많이 풀렸음. 최정석(50세, 엘에이)

건강과 성경 이야기 40

옛날에 어떤 제자가 스승에게 인생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스승이 말씀하시기를 인생이란 사막에 어떤 사람이 식인 코끼리에 쫓겨서 도망가다가 우물을 만나서 두레박 물을 타고 내려가다가 아래를 보니까 수많은 독사들이 입을 벌리고 있어서 내려가지 못하고 식인코끼리 때문에 올라가지도 못한 채 매달려 있는데, 뒷쪽에서 검은쥐, 하얀쥐가 매달려있는 줄을 갈가먹고 있는 절박한 상황에서, 배가 고파서 눈을 들어보니 벌꿀 길쭉레 손으로 찍어서 먹으면서 아~ 달다 라고 하는것이 인생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식인 코끼리는 시간이고 검은쥐, 하얀쥐는 밤과 낮이며, 두레박물은 인생의 즐기며, 벌꿀은 세상의 즐거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벌꿀만을 즐기는 사람이 있지만, 반대로 한국인들에게만 많이 발견되는 화병 또는 울화병이라는 질환으로 고통 중에 인생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화병은 주로 마음이 원인이 되어서 오는 것으로, 외부로부터 받은 충격을 풀어버려야 하는데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여, 가슴에 쌓여서 화병으로 변합니다. 증상을 보면 항상 피곤하다, 가슴이 두근거린다, 머리가 아프다, 얼굴이 화끈 달아오른다, 잠이 잘 안 온다, 짹짹잠 잘 못한다, 만사가 귀찮다, 눈이 침침하고 쉬 피로하다, 속이 메스껍다, 불안하다, 어지럽다, 얼굴이 붓는다 등등이지만, 화병의 치료법은 가슴에 화가 쌓이게 된 원인을 제거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는 식품도 당귀차, 천궁차, 대추차, 인삼차, 향부자차, 생강차, 산수유차, 구기자차, 오이즙, 보리차, 옥수수 수염차, 녹차 등이 있습니다. 이런 차들을 마셔 보아도 협심증등 화병의 증세가 있다면 성경말씀을 잠시 살펴보신후에 그 해결방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편은 다윗왕과, 모세, 솔로몬과 다윗시대의 성가대 대장 아삽등이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서 기록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가 예수님 탄생보다 훨씬 전 사람들입니다. 시편2편 1.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무료건강상담 문의 213-435-9600

셀라케어 제품은 유태인 코셔인증의 고급 유기농 원료로 만든 미국제품으로 미국 FDA인증의 GMP생산품 입니다. www.sellacare.com

본사(LA)	213.435.9600	뉴서울호텔 (팔팔)	213.386.5310	플러튼 내셔널센터	714.690.0120	토렌스 한남제민(건강마을)	310.619.7758
시온약국	213.382.6485	LA벌론 마틴약국	213.382.9718	플러튼 베스트케어약국	714.670.7979	뉴욕, 뉴저지	201.983.8333
LA 아드모아약국	213.385.2135	LA벌론 갤러리아마켓약국	213.388.4100	에나하임	714.469.5809	시애틀	206.331.6655
LA 한국마켓약국	323.464.3925	가주건강종합백화점	213.388.0091	다이아몬드바 JJ 약국	909.595.4003	씨애틀 (건강마을)	206.229.5466
LA 베스트약국	213.385.9926	LA 5가버질 그랜드약국	213.380.5103	얼바인	949.330.9009	센루이스, 캔사스	314.570.9629
우리약국 (우리종합병원내)	213.384.6323	가디나	714.351.0440	H 마트 내 H 헬스 (다이아몬드바)	909.594.6370	하와이(생약촌)	808.947.8086
에스약국	323.733.7788	글렌데일 한국마켓약국	818.637.7708	랜초쿠카몽가	909.987.9500	시카고 알바니약국	847.699.1511
올림픽갤러리아마켓약국	323.733.7200	벨리	818.642.8223	H 마트 내 H 헬스 (얼바인)	949.251.0193	시카고 서울마켓 (헬렌)	224.406.0337
LA 다운타운	213.798.3333	벨리 소망 약국	818.832.2757	놀렉 H 마트 리빙헬스	562.402.8859	조지아 (발아건강식품)	770.457.1717
LA시온마켓엄마손약국	213.739.3030	오렌지카운티	213.247.2244	파이오니어약국 (세리토스)	562.402.6972	텍사스 (로얄백화점)	972.620.2900
LA 6가 버질약국	213.384.1200	부에나비크 지구촌약국 (H마트 내)	714.228.9212	세리토스 그린라이프	562.402.6970	플로리다/NC/SC	770.457.1717
LA 사랑방	213.351.9552	가든그로브 건강마을	714.636.2588	그린랜드 건강헬스 (그린마켓 내)	626.839.2868	캐나다	604.872.1669
LA내셔널센터	213.739.8874	시온마켓 내 시온헬스	714.730.2707	로렌하이츠	626.912.5727	세크라멘토/아리조나	602.332.6492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요15:7)

日 전역에서 IS에 희생된 유카와 · 고토 씨 추모행사 열려

일본 홋카이도에서 큐수까지 일본 전역에서 추모물결 이어져



추모객들이 'In memory of Kenji Goto Yukawa Haruna we will never forget you'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애도하고 있다.

이슬람국가(IS)에 의해 살해된 유카와 하루나 씨와 고토 겐지 씨를 추모하는 집회가 8일 저녁 홋카이도에서 큐수까지 일본 전역에서 열렸다고 일본 크리스천투데이가 보도했다.

이번 집회 소식은 트위터를 통해 알려졌으며, 도쿄 시부야에서의 참석자들은 "I AM KENJI" "May Rest In Peace. In memory of Kenji Goto Haruna Yukawa" 등 영어로 된 현수막 등을 들고 애도했다.

요코하마에 사는 한 남성 직장인(32)은 지난 2011년 1월 중동 내전이 시작되기 약 2개월 전, 홀로 시리아와 요르단을 방문한 적이 있다

고 했다. 그는 "이후 시리아 소식을 뉴스로 접하면서 고토 씨의 이름을 볼 수 있었다. 정말 마음이 아프다. 일본의 정세가 좋지 않은데, 이들의 죽음을 조금이라도 애도하고 싶다"고 했다.

사이타마현의 장애인 복지지원 시설에서 근무하는 한 남성(46)은 "유카와 씨와 고토 씨의 죽음에 대해 '자초한 일'이라고 비난하는 풍조가 있다. 이러한 풍조는 복지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존재한다. 그러나 나이가 먹어 인식이 어두워지거나 장애인이 된 것은 그 사람의 책임이 아니다. 살해된 두 명에 대해서도 국가와 우리가 지켜야 할 책

임이 있었다. 나는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친척 중에 기독교인이 있으며 그에게 공감하는 바가 있다. 고토 씨가 기독교인이었다는 사실은 이번 사건을 통해 알았다"고 했다. 나가노현에서 왔다는 한 여성(44)은 고토 씨가 4년 전에 트위터에 남긴 글을 적어왔다. "눈을 감고 가만히 참자. 화가 나서 고통을 치면 끝. 그것은 차라리 기도에 가깝다. 미움은 사람이 할 일이 아니며, 심판은 하나님의 영역. 이것을 가르쳐 준 이들은 아랍의 형제들이었다"는 내용의 글은, 4만명 이상이 공유하고 TV나 신문 등에서도 많이 인용됐다.

이 여성은 "집회에 참석할 수 없었던 남편이 이 글을 인쇄해 주었다. 여기에 써 있는 대로, 고토 씨는 자신이 원해서 테러와의 싸움을 하려는 것이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두 사람의 죽음이 몹시 유감스럽고 슬프다"고 했다.

트위터에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이날 추모 집회는 삿포로, 센다이, 도쿄, 치바, 나고야, 교토, 오사카, 후쿠오카 등 전국 8개 지역에서 오후 5시부터 동시에 진행됐다. 시부야에서 내리던 비는 집회 전에 그쳤으나, 일부 지역 참가자들은 빗속에서 촛불을 들고 두 사람의 죽음을 애도했다. 강조했다.

강혜진 기자

오바마 대통령 "종교가 악용되는 이유는 죄 때문"

국가조찬기도회에서 IS 비판... 올바른 신앙 위한 3원칙 제시

5일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한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IS의 폭력성을 언급하며, 올바른 신앙을 위한 3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믿음에서 나오는 것은 모두 긍휼과 사랑이며, 신앙은 사람들이 일상에서 선행을 하는 데 영감을 준다"면서 구호단체 '선한 사마리아인 의 집합' 소속 켄트 브랜틀리 박사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날 조찬기도회의 개최기도를 맡은 브랜틀리 박사는 오바마 대통령의 옆자리에 앉았다. 그는 앞서 서아프리카에서 의료 선교 활동을 하던 중 에볼라에 감염됐다가 기적적으로 완치됐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신앙은 또한 악을 위해 잘못 사용될 수도 있다. 신앙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지만, 때로는 비뚤어지고 왜곡되어서 무기로 사용되는 것도 알고 있다. (무슬림) 테러리스트들이 '이슬람을 위한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이슬람을 배반하고 있다"면서 최근 중동·파리 지역에서 발생한 테러들을 언급했다. 그는 "종교의 이름으로 폭력을 자행하는 것은 이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면서 "심자군, 종교재판, 노예제도와 짐 크로우 등은, 모두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옹호했었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종교가 악에 의해 잘못 사용되는 이유는 '죄' 때문

이라며 "이는 한 단체 혹은 한 종교에만 특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성향이다. 우리 안에 신앙을 왜곡하고 비뚤어지게 하는 죄적인 경향이 있다"면서 종교가 악한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3가지 원칙으로 ▲겸손 ▲정교분리 ▲골든 룰 등을 꼽았다.

'골든 룰(황금률)'이란 "내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다른 이를 대접한다"는 것으로, 오바마는 "이는 모든 신앙인과 구도자들을 묶는 한 가지 원칙이다. 이 골든룰은 꼭 유대-기독교인의 신앙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꾸란에도 언급돼 있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가 서로 안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형제·자매를 지켜주는 이들이 되고, 다른 이들을 향한 신뢰를 볼 때는 아마도 가장 큰 도전일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언급하며 "우리가 만약 겸손하다면, 어떤 상황이 닥치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온전히 다 알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할 때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것이다. 우리는 그의 놀라운 은혜를 온전히 헤아릴 수 없다. 우리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지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라'는 말씀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다"고 했다.

순현정 기자

IS 억류 중 사망한 물러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과거 가족에게 보낸 편지에서 심경 밝혀 · 오바마 "테러, 정의의 심판할 것"



케일라진물러

이슬람국가(IS)에 억류됐던 미국인 케일라진 물러(26, Kayla Jean Mueller) 씨가 사망한 것으로 10일 공식 확인된 후, 미국 사회가 크게 분노하고 있다. 물러 씨는 미국인으로서 제임스 폴리, 스티븐 소트로프, 피터 캐시 이후 4번째 희생자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특별 성명을 내고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deepest condolences)를 전하는 한편, "미국은 케일라의 억류와 죽음에 책임을 져야 할 테러리스트를

정의의 심판에 회부하겠다"고 약속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물러 씨의 인도주의 활동을 칭찬함과 동시에, IS에 대해서는 "혐오스러운 집단(hateful and abhorrent terrorist group)"이라 비판했다.

미국 내 현 여론에서는 IS 격퇴를 위하여 미국이 지상군을 투입해야 한다는 공화당의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그 동안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은 지상군 투입에 부정적인 태도였으나, 국내 여론이 악화됨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이 즉시 의회에 IS를 상대로 한 무력사용권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애리조나주 출신인 물러 씨는 시리아 난민들을 돕고자 "서포트 투라이프"라는 단체에 소속돼 활동하다 2013년 8월 IS에 납치됐다. 그

전에도 그는 인도, 팔레스타인, 터키 등지에서 다양한 인도주의적 봉사활동을 해 왔다.

물러 씨는 억류 기간인 2014년 가족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엄마가 항상 마지막에 결국 의지할 분은 하나님 뿐이라 한 것을 기억한다. 나는 말 그대로 자신을 창조주께 맡겨드려야 하는 그 시점에서 서게 됐다. 하나님과 당신의 기도를 통해 나는 나라으로 떨어지는 가운데에서도 부드럽게 안겨 있는 느낌이다. 나는 어둠 속에서도 빛을 보았다. 감사하다"고 전했다. 또 마지막에는 "두려워 말고 계속 기도해 달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 우리는 곧 함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희망을 전하기도 했다.

김준형 기자

프란치스코 교황

오는 9월 사상 최초 美 의회 연설

교황 프란치스코가 오는 9월 24일(이하 현지시각)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할 예정이다. 로마 가톨릭교회 수장인 교황이 미국 의회에서 연설하는 것은 역사상 처음이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6일 기자회견을 통해 "오는 9월 24일 교황께서 미국 의회를 방문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영광이다. 이날 교황께서는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하며, 이는 역사적인 방문이 될 것이다. 우리의 초청을 받아들여 준 교황께 감사한다"고 전했다.

베이너 의장은 또한 "박애와 인간 존엄성에 대한 교황의 메시지는 전 세계 모든 종교인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의 가르침과 기도, 그리고 모범은 우리에게 단순한 일상의 복

과 서로에 대한 의무를 다 시금 일깨워 주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모든 미국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 교황을 의회에서 맞이하고 연설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교황은 올 가을 미국을 공식 방문해 필라델피아에서 세계가족모임(World Meeting Families)을 비롯한 가톨릭 성도들의 모임을 인도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교황 프란치스코

강혜진 기자

희소식 Super store 푸엔테힐스에서만 드리는 중·소형 교회 목회자를 위한 자동차 특별 리스 '파스터 패키지'(Pastor Package)

크레딧이 없거나 나빠도 OK! 중·소형 목회자를 위한 원가세일!

차종 : 엘란트라, 소나타, 중고차
 구입서류 : 목회자 증명서, 현재 목회하고 있는 교회 주보, 소득증명서

PH 푸엔테힐스 현대 Tel. (213)276-8959(찰리 정)
 Puente Hills Hyundai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Dealer Tel. 1-880-850-2077

찰리 정

뉴욕교협 이단사이비대책협의회 신년모임

이단 경계 위한 홍보와 정보 공유 연합체 역할 다할 터



뉴욕교협 이단사이비대책협의회가 지난 5일 신년모임을 가졌다.

뉴욕교협 산하 이단사이비대책협의회(회장 유상열 목사)가 지난 5일 신년 첫 모임을 갖고 뉴욕교계의 현안들을 나눴다.

이날 모임에서는 뉴욕 지역의 목회자들도 참석해 최근 뉴욕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의 집회들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유상열 목사가 배부한 '이단대책 및 방지를 위한 종합연구'를 숙지했다. 또 이날 회무에서는 신입총무로 바이스라엘 목사를 선출했다.

이날 모임에서 유상열 목사는 "본 이단대책협회는 이단을 규정하는 단체가 아니라 지역 내 이단을 경계하고 교인들이 이단으로 빠지지 않도록 홍보하고 정보를 나누는 역할을 담당하기 위한 연합체"라면서 "지역의 교회들이 서로 연합해 이 일을 잘 감당해 나갈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이날 배부된 '이단대책 및 방지를 위한 종합연구'는 이단에 대한 일반적, 성경적, 신학적 개념과 성경에 기록된 이단표현, 이단 사이비 사교 개념을 정의하고 이단 발생원인, 이단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교회를 어떻게 괴롭히나? 언제 이단에 빠지게 되나? 어떻게 대처하나? 등 목회자들이 손쉽게 이단에 대처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정리했다.

유상열 목사는 "교인들을 이단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성경 및 교리교육이 필요하다"며 "교회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는 열심히 강요한 결과"라고 말했다.

또 유상열 목사는 "이미 이단으로 알려진 것보다 제도권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이런 저런 비성경적인 모습은 사람들을 이단에 빠지게 하는 원인이 된다"며

기성교회 자체 정화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모임에서는 현재 뉴욕에서 한 목회자가 치유집회에서 한번 기도할 때마다 200-300불의 돈을 공식적으로 받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이날 옵서버로 참석한 김연규 목사는 신옥주 목사(은혜로교회)에 빠진 청년교인에 대해 이야기해 경각심을 높였다. 또 이날 옵서버로 세기총 이단대책 상임위원 이종명 목사가 참석했다.

이날 회무에 앞서 드린 예배는 유상열 목사의 인도로 이성현 목사 기도, 조부호 목사 설교, 박마이클 목사 축도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조부호 목사는 마가복음 12장 17절-18절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설교에서 "성경에도 이단 발생에 대해 많이 말씀하고 있다"면서 "이단은 성경지식에 대한 부재에서 오는 오해로 생기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또 조부호 목사는 "크리스천의 처세원리는 첫째 환난이 오면 참는다. 둘째, 유혹은 피한다. 셋째 이단은 대적한다"라면서 "영지주의자 말시온이 교회를 미혹할 때 경계와 작업이 일어나 교회가 살아난 것처럼 진리로 비진리를 물리쳐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조부호 목사는 "노아방주가 역청으로 물을 막은 것처럼 밖에서 역청을 치는 일이 이단대책협의 역할이며 안에서 역청을 치는 것은 교회내 교리교육을 강화하는 것"이라면서 "교회를 깨우는 나팔수가 절실한 이 때에 이단대책협회가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대원 기자

예수사랑나눔 '더 헝거워크' 올해도 참가

배고픔은 그만! 굶주리는 이웃을 돕자



노숙자들이 예사나의 섬김으로 한 끼 식사를 해결하고 있다.

배고픔은 그만. 굶주리는 이웃을 돕기 위한 조지아 '더 헝거 워크(The Hunger Walk)'에 예수사랑나눔(대표 이영배 목사)이 올해도 참가한다.

2010 센서스 조사에 따르면 조지아 18세 미만 인구 중 빈민층의 비율은 전체의 22.3%다. 또 조지아 주민의 16.5%를 차지하는 1백6십만 명이 조지아 주민이 빈민 인구로 분류됐다.

이는 2008년 1백4십만 명에 비해 23만 명이 늘어난 수치다.

1984년부터 시작된 더 헝거워크 걷기 운동은 30여년 간 진행되면서 매년 1만1천명 이상을 동원, 50만 불 상당을 모금해 지역과 세계 빈민을 도와왔다.

성금은 걷기 참가자 30불, 달리기 참가자 40불의 참가비를 포함, 추가 헌금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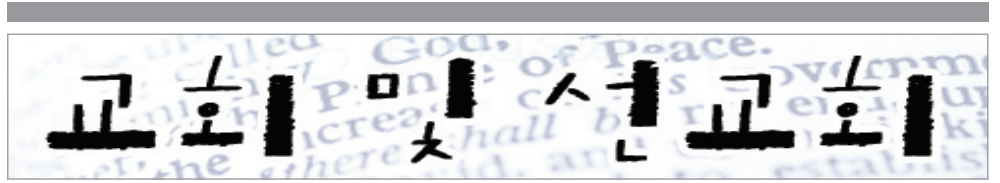
이뤄진다. 개인과 단체 모두 동참할 수 있다. 올해는 3월 15일 오후 12시부터 등록이 이뤄지며 오후 2시부터 5K 걷기와 달리기 행사가 시작된다. 장소는 예년과 같은 터너필드 야구장이다.

예수사랑나눔은 매주 푸드뱅크를 통해 식품을 구입하고 홀리스를 위해 음식을 제공하는 등 활동을 꾸준히 해왔다.

더 헝거워크 걷기 운동에도 매년 참가해 굶주리는 이들을 도와왔다. 참가를 원하는 이들은 예수사랑나눔으로 직접 연락하거나 더 헝거워크 웹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다.

예수사랑나눔은 "온라인으로 참가 신청시 Atlanta Community Food Bank로 해달라"고 덧붙였다.

윤주이 기자



LA 지역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연합새벽 오전 6:2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션교회
함께웃고 함께우는 공동체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hc.com

1부예배 오전 7:30 성인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00 한어청년예배 오후 2:00
3부예배 오후 1:00 찬양예배 오후 3: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시

박현성 담임목사

나성열린문교회
생명과 부흥이 풍성한 교회

3251 W.6th St., LA, CA 90020
T. (213) 383-2600, (213) 413-1600 / laopendoor.org

주일 오후 4시
새벽 오전 5:30 (월-토)
저녁 오후 7:30 (화,목,금)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978 S. Hoover St.#203 LA 90006
T. (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8:00 영아예배 1부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0:00 2부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금요일에 저녁 8:00

나성한인교회

2241 N. Eastern Ave. Los Angeles, CA 90032
T. (323) 221-9531 / F. (323) 221-0345

1부예배 오전 7:40 EM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3부예배 오전 11:45 수/금요일에 오후 7:30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믿음 위에 세운 뜻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1부 오전 5:3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2부 오전 8:30 (월-금)
오전 10:30 (수) 오전 6:30 (토)

정우성 담임목사

남가주광염교회
말씀과 기도로 비스하는 은혜공동체

1153 Valencia St. Los Angeles, CA 90015
T. (213) 598-0191

1부예배 오전 8:00 대학부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저녁 7:30(목)
유초등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중고등부 오전 10:45 6:00(토)

김광삼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교회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1부예배 오전 9:00 주일학교 오후 1:00
2부예배 오후 11:45 새벽예배 오전 6:00 (화-토)
성경공부 주일오후 2:00

김요섭 담임목사

남가주리디머교회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7-3538 / www.laredeemer.com

주일 예배 오전 11:00 E.M.예배 주일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1:45 삼일기도회 수요일 오후 7:30

이영 담임목사

라성빌라델비아교회
하나님 중심 생활/ 말씀 중심 생활/ 교회 중심 생활

3240 Wilshire Blvd. #265 Los Angeles, CA 90010
T. (714) 319-2234

주일예배 오전 9:00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9:00
EM예배 주일 오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찬양예배 주일 오후 1:00 목요찬양예배(목요일) 오후 7시 30분
교회학교 주일 오전 9:00

김경렬 담임목사

산타모니카한인교회
죽도록 섬기는 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 502-9999 / www.smkc.us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 2부 오전 9: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00

한기형 담임목사

나성동산교회
은혜와 진리가 증명한 교회

2525 W 9th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487-3920

1부예배 오전 8:3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30

정장수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김연일, 이음, 김, 열매

311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T. (213) 387-1700 C. (213) 500-4737 / olympic-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강지원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1부예배 오전 9: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EM예배 오전 10:00

조인수 담임목사

씨너지이드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며 예수 안에서 행복한 공동체

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

무료 사회복지 상담 및 대행 (정부 배넛 전판)
음식 보조 프로그램(Food Stamp),메디칼, 입산부 메디칼

이경애 목사, 이은우 목사

요한 선교교회

gkal44 Yahoo.com Tel: (213) 703-6863
522 N Hobart Blvd Los Angeles CA 90004

1부예배 오전 8:00 영아예배 오전 10: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전 7:30
3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

김세환 담임목사

엘에이연합감리교회
100년역사의 미국 본토에 세워진 최초의 한인교회

7400 Osage Ave. Los Angeles, CA 90045
T. (310) 645-3698 / F. (310) 645-3060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주요 찬양예배 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현연섭 담임목사

구인성장로교회
실천하는 전도하는/ 헌신하는 신앙 공동체

4545 W. Washington Blvd. LA, CA 90016
T. (323) 428-7878 F. (323) 932-0788 / kuhinoh@hanmail.net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후 11:00
EM 오후 1:00
한어청년부 오후 1:30

서건오 담임목사

나성서부교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A CA 90019
T. (323) 939-7323 / www.lakwpc.org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류종길 담임목사

임마누엘선교교회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T. (323) 766-9922 / www.laimch.com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영아예배: 주일오전 10:30 새벽예배: 화-금 오전 5:30
성경공부: 주일오전 10:30 토 오전 6:30
주일예배: 오전 11:3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신현호 담임목사

새하늘 교회

2909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Tel. (213) 500-3721 / www.NewHeavenChurch.com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중고등부 오전 11:00 오전 6:30 (토)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 소.초 정신의 흐름, 비전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민종기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F. (818) 549-9199 / choonghyun.org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찬양기도회 오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주일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00 (토) 중고등부 오전 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심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 321-4433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절은이 예배 오후 2:22 오전 6:20(토)
주일-비결중요 / 토요새벽-17와버몬트 코너-4-100 New Hampshire
주일새벽-LASFC대안(67)와 라파예트 코너-620 S. La Fayette Park

박성도 담임목사

LA 선교교회
내 지평을 넓혀라, 믿음으로 성장하고, 사랑으로 해-나-며, 소망중에 기뻐하자

3511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435-0380, (213) 435-0094 / www.missionla.org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절은이 예배 오후 2:22 오전 6:20(토)
주일-비결중요 / 토요새벽-17와버몬트 코너-4-100 New Hampshire
주일새벽-LASFC대안(67)와 라파예트 코너-620 S. La Fayette Park

김기섭 담임목사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깨우고, 이단(2세)을 책망하며, 이단(가정)을 치유하며, 선교(영광)을 증진하는 교회

버질중학교 (1가와 버몬트 코너-152 N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 (213) 386-2233 / www.LASarang.com

LA 동부, 팜스프링스 지역

이희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영아예배 오후 1: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선양성령집회 오후 8: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갓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주일예배(주일) 오전 11:30 새벽기도회(토) 오전 06:00
교회학교(주일) 오전 11:30 토요모임(토) 오전 06:00
문화교실(주일) 오후 01:30 성경연구(수) 오후 07:30

백재준 담임목사

행복한주님의교회
우리는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군대, 주님의 신부입니다
7690 Archibald Ave. Rancho Cucamonga, CA 91730
T. (626) 710-0798 / todaud7@hotmail.com

주일예배 오전 9시 (직접전)
오전 11시 (본성전)
본성전: 75580 E Ramon Road, Thousand Palms, CA 92276
지성전: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최승목 담임목사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2015년 표어: 선인과 악인 모두에게 빛을 비추는 교회(마5: 45)
1. 민족을 넘어서 2. 신앙을 넘어서 3. 국가를 넘어서
T. (760) 636-2675 / palmssprings.onmam.com

1부예배 오전 8:00 대학청년부예배 오후 12:5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1:00 (토) 오전 6:00
4부예배 오후 12:5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고태형 담임목사

선한목자장로교회
선교하고 가르치는교회
1816 S.Desire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965-3443 / F. (626)965-0404 / sunhanchurch.com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토) 오전 6:00(토)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45 수요일성경공부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오전/월-금) 5:30(토) 오전 6:00

박신철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창대교회 사명의 나눔(매주 토) 오전 10:00-11:00

이훈준 담임목사

창대교회
하나님께 영광!
173 E.Dumas ST., San Bernardino, CA 92408
T. (909) 388-2940

1부예배 오전 7:45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2부예배 오전 10:00 오전 6:00(토)
3부예배 오전 11:45 금요기도회 오후 8:00

양성필 담임목사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18616 E. Romir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 www.hanarochurch.org

사우스 베이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30 주일후오전성경공부 오후 1:30
목요예배 오후 7:30분 영어예배(EM) 오전 11:30
새벽예배 오전 6:00(수,토) 유년주일학교 오전 11:30

안병권 담임목사

가나교회
1201 W. 255th St. Harbor City, CA 90710
T. (310)986-9797 ganachurch.hompage.com

1부예배 오전 8:00 1부예배(EM)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EM) 오후 1:15
3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EM) 오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9-11시

정상용 담임목사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73-5106 / F. (310) 973-7429

주일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후 12:00
성경공부 주일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45

김영구 담임목사

나눔 장로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521 Lomita Blvd #202 Torrance, Ca 90505
T. (310) 404-6219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 오전 5:15(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서보천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 doulos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 9:30/2부 11:00
2부예배 오전 9:30 금요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권영국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땅끝까지 내 증인이되라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2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오후 11:00
다민족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회
1044 West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213)365-9188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화-토)

강신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이중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1부예배 오전 8:00 장미우예배 오전 10:00
2부예배 오전 10:00 Toddler - Youth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30 오전 11:30
EM예배 오전 10:00(장년)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am
오후 2:00(장년) 수요일예배 오후 8:00
H/W예배 오후 3:00(장년) 금요일예배 오후 8:00

김배울 담임목사

토렌스 조은교회
www.torrancegcc.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 370-5500 / F. (310) 370-2009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캐나다, 글렌데일, 벨리, 벤추라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주일 성경공부/새교우반 새벽예배 오전 7:00(토)
오후 1:00

류준영 담임목사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붙잡고, 자라는, 건강한 교회!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T. (323) 254-4012 / gkpcchurch.com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EM 1부예배 오전 9:30 토요일 오전 6:00
2부예배 오전 11:00

이성현 담임목사

드림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뤄 드리는 교회
130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6
T. (626) 793-0880 / F. (626) 793-6412

EM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스페인어예배 오전 10:00 오후 6:30(토)
한국어 오전 10시(힐로우쉽)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오후 12:00(본당)

최호년 담임목사

파사데나장로교회
새 사람, 새 교회, 새 세상을 열어가는 신앙공동체
58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1
T. (626) 795-6252 / F. (626) 584-6544

주일 대예배 오전 11:20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밸리채플 Valley Chapel 세리토스채플 Cerritos Chapel 비전채플 Vision Chapel **최희** 담임목사
주일예배 - 오전 8:00 / 9:45 주일예배 - 오전 9:30 / 11:30 주일예배 - 오전 5:30
금요성경예배 - 저녁 7:45 목요일성경예배 - 저녁 7:45 12631 E. Imperial Hwy, #F134
새벽예배 월-금 5:30, 토 6:00 13808 Imperial Hwy, Santa Fe Springs, CA 90670 Santa Fe Springs, CA 90670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Tel. (818) 363-5887 / www.In-ChristCC.org

교사예배(주일) 오전 9:45 수요일(도회) 오후 7:30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성경예배 - 저녁 7:45 목요일성경예배 - 저녁 7:45
유초등부(주일) 오전 11:00 구약모임 매월 1회
중고등부(주일) 오전 11:00 한글학교(토) 오전 10:30

조인 담임목사

벤추라카운티장로교회
'예수의 심정으로 섬기는 교회' (빌1:8)
737 W. 6th St. Oxnard, CA 93030
T. (805) 483-7009

문/서/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Fax. 213) 402-5136

기드온 동족선교회 7주년 기념 세미나

북한 선교 헌신 황기선 박사 자서전 출판기념 함께 해



기드온동족선교회 창립 7주년 기념 감사예배 및 황기선 박사 출판기념 행사가 지난달 19일 열렸다. 황기선 박사(앞줄 왼쪽에서 5번째), 박상원 목사(뒷줄 왼쪽에서 3번째)

기드온 동족선교회(대표 박상원 목사)가 창립 7주년을 맞이하여 황기선 박사의 자서전 "볼 풀, 못 볼 풀, 다시 보고 싶지 않은 풀" 출판 감사예배를 겸한 "대한민국 통일의 바른 이해와 현실적 공감"을 주제로 간담회를 지난달 19일 개최했다.

이날 오후 4시-9시까지 린우드 기드온동족 선교센터에서 열린 행사에서 대표 박상원 목사는 "지난 7년동안 동족사랑과 통일염원의 사명을 가지고 노력했다"며 이제 북한지하성도들의 간증문인 '굴뚝보다 더 큰 목마름'이 한글과 영문으로 출판되어지고, 이제 영화제작의 뜻까지도 나오게 된 것은 동족구원과 통일을 바라는 후원자들의 기도와 협력이 있었다고 감사했다.

80 고회 기념으로 자서전을 펴낸 선교회 고문 황기선 박사는 "32년동안 북한 가족을 만나기 위해 7차례 방북했지만 아무말도 못했으나 이제 마지막 북한을 다녀온 후 정리하는 마음으로 책을 발간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 책은 북한을 곁들이기 아닌 바로 알고, 겉이 아닌 뒷면과 속으로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심층있게 다뤘다"며 겉으로만 보고 북한이 살만하다고 이야기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예배의 찬양은 황기선 박사가 선택한 새 찬송 330장 "어두운 밤 쉬 되리니"를 함께 불렀다. 이어 기드온 동족선교회의 지도위원 이병일 목사의 기도와 신명기 11:27~32를 본문으로 민영선 목사(기드온 동족선교회 이사장)의 메시지 "우리는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가 전달 되었다.

민 목사는 일반적인 선교는 결과가 바로 나타나는데 반해 북한 선교는 결과는 커녕 중보좌파라는 오명을 덮어 쓰기에 딱 알맞은 선교라고 운을 떼었다. 드러내고 자랑도 할 수 없으며 언제 그 결실

을 볼지 기약도 없는 선교이기에 지지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회중에게 선포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북한땅에 선포하면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따라 복 받은 자와 저주 받은 자가 구별 될 것을 믿으며 북한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하는 자의기를 바라며 선포된 복음으로 말미암아 북한의 동포들이 복 받게 될 날을 소망한다고 북한 선교의 비전을 설명했다.

이어서 황기선 박사의 자서전 "볼 풀, 못 볼 풀, 다시 보고 싶지 않은 풀"에 대한 소개와 서평이 이어졌다. 조선 말기와 일제 강점기를 거쳐 6.25전쟁을 겪으면서 저자의 할아버지에서 시작하여 아버지와 저자로 이어지는 이야기를 통하여 이 책은 북녘 땅에서 있었던 사실들을 소개한다.

즐거는 황기선 박사의 가족사이지만 넓게는 할아버지의 독립운동 개입과 아버지의 삶 그리고 피난민이 되어 남한에 정착하고 미국으로 이민과 황해도 사리원 고향을 찾아가는 저자의 삶과 연관되어 질곡에 찬 한국 근대사를 엿볼 수 있다.

서평을 한 문창선 목사(타코마 제일침례교회 원로)도 북한을 7회 방북했지만 북한에서 만나하는 곳만 접하여 이 책에서 서술하고 있는 모습과 다른 모습으로 북한을 기억한다고 털어놓았다. 하지만 상황적으로 황 박사의 기술이 더욱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고 북한을 바로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 책을 권했다.

이어 '통일의 바른 이해와 현실적인 공감'에 대해 황기선 박사의 "내가 직접 경험해서 본 북한이해, 신은미와 비교해서"를 비롯해 문창선 목사, 민영선 목사, 황보철 장로, 박상원 목사의 주제발표와 토론의 시간이 이어졌다.

기사 및 사진 제공
기드온동족선교회 대표 박상원 목사

미주 한인교회 성도들

영혼 구원 향한 하나님 마음으로 일어나야

시애틀 연합장로교회, 조영 장로 강사로 전도 집회 열어



GO 전도지역원 원장 조영 장로가 시애틀 연합장로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하고 있다.

시애틀 연합장로교회(담임 장윤기 목사)는 지난 7일-8일까지 이들 동안 'GO 전도지역원'의 원장인 조영 장로를 강사로 전도집회를 가졌다.

"가서 선포하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집회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사 60:1)", "거룩한 야성을 회복하라(행 1:8)", "오늘이 바로 그날이라면(딤후 4:1,2)", "GO! 전도자의 사명(막 6:15)"의 설교를 통해 전도에 대한 사명을 재확인시켰다.

조 장로는 "신자라면 구원받은 것을 확증하고,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며 "주님을 사랑하고 은혜를 받았다면, 그분의 소원을 알아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더 알아가는 가운데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장로는 5만 명의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현장 이야기 "나가자 선포하자 승리하자"라는 책을 소개하며, 맥도

널드에서 전도지를 나누어 주고 나올 때, 그렇게 떠들어대고 시끄럽던 손님들이 전도지를 진지한 모습으로 조용히 읽고 있는 모습을 보고 용기를 얻기도 했다

다고 소회를 전하기도 했다.

조 장로는 전도의 장애물은 대인 공포증, 거부감에 대한 불안, 이기주의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구원의 기쁨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는 "전도의 주체는 하나님이고, 성령님께서 역사하면 복음은 전해질 것"이라며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고 열정적인 전도자의 삶을 다짐하자"고 강조했다.

조 장로는 "미주 한인교회의 부흥과 더 나아가 미국의 부흥은 전도가 아니면 일어날 수 없다"며 "영혼 구원을 향한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미주 한인교회 성도들이 일어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임형진 기자

개교회의 벽을 넘는다 리브뉴저지 첫 중보기도 모임 가져

개교회를 넘어 지역교회들간의 연합과 일치 운동



개교회주의를 넘어서는 지역교회들의 순수복음전도운동인 리브뉴저지 첫 중보기도모임이 열리고 있다.

개교회주의를 넘어서는 지역교회들간의 연합과 일치 운동인 '리브 뉴저지'가 지난 8일 뉴저지 주님의은혜교회(담임 최준호 목사)에서 첫 중보기도 모임을 열고 합친 비약을 알렸다. 리브 뉴저지는 수평이동에 의한 교회들간의 경쟁을 지양하고 뉴저지의 목회자와 평신도들이 연합해 오로지 새 생명을 구하는 순수복음전도운동이다. 현재 뉴저지교협 소속 교회들과 목회자들이 '리브 뉴저지'의 뜻에 동참하고 있으며, 지역에서 대형교회로 꼽히는 필그림교회의 경우 부교역자와 반주자 등의 교회 일꾼들이 주일이면 지역의 작은 교회들에 나가 봉사하는 등 구체적인 섬김으로 이 운동을 돕고 있다. 첫 기도회에서 참석자들은 뉴저지의 각 교회들의 부흥과 뉴저지 지역의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 이날 기도회에는 특정교회의 이름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으며 오로지 뉴저지 교계와 뉴저지 지역 공동의 영적 기도제 목만을 두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다. 첫 중보기도모임에서는 양춘길 목사가 설교를 전했다. 양춘길 목사는 리브 뉴저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에만 국한된 시각을 가졌던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선교지로 보게 하셨던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함께하는 운동이라고 강조했다. 또 양춘길 목사는 설교에서 "최근 제 자신의 목회를 돌아보고 이민교회들의 현재 상태를 지켜봤을 때 '이 상태로 계속 가면 미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면서 "리브뉴저지는 이제 정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시작한 것으로, 나만 생각하고 우리만 생각하고 개교회주의에 빠졌던 모습에서 다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전환의 운동"이라고 설명했다.

김대원 기자



남부시카고한인연합감리교회 구정맛이 잔치준비 한창 남부시카고한인연합감리교회에서 구정을 앞두고 풍성한 설날 잔치를 준비하고 있다. 남산교회 주최로 오는 15일(주일) 개최되는 설날 잔치에는 떡 만들기, 세배, 축하 공연등이 마련될 예정이다. 매년 설날 잔치를 준비해 한국의 그리움을 달래는 남부시카고교회 설날 잔치는 15일 12시부터 1시30분까지 친교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외 시카고한인교회도 설날 맞이 민속놀이를 준비하는 등 다양한 설날 행사들이 한인 교회를 중심으로 펼쳐질 예정이다. 권문정 기자

애틀랜타CBMC 비전스쿨 성료

졸업생 24명 배출, 경험과 비전 나누며 '킹덤 컴퍼니' 만들어 갈 것



애틀랜타 CBMC 비전스쿨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애틀랜타 기독교실업인회(회장 송근식, 이하 CBMC) 비전 스쿨이 지난 6~7일(금-토), 양일간 돌루스 소재 윈게이트 윈드햄호텔에서 열렸다. 개강예배에서는 마태복음12장 9~13절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한 박상근 CBMC 총연합회 수석 부회장은 "고 정주영 회장이 비지니스에 열정을 가지고 꿈을키워 현대 자동차가 미국의 가난한 도시 몽고메리를 바꾸는 영향력을 주는 사업체가 되었다. 우리는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바른 삶을 영적으로 리

드해 가야 한다. 이럴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이어진 졸업예배와 졸업식에서는 "각 지회에 변화는 팀워크가 중요하다. 서로가 멘토링으로 돌봄과 사랑 나눔과 섬김으로 일터가 사명 실행지가 되기를 바란다. 비즈니스 현장에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자"고 솔로몬 김CBMC총연합회 회장이 독려했다. 또한 이번 졸업식에서는 24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앤더슨 김 기자

O.C./앨버틴 지역

<p>오병의 담임목사</p>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2:3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p> <p>건강한 교회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교회</p> <p>7037 orangethorpe Ave., Buena Park CA 90621 T.(714) 801-1625 kpcadavid@yahoo.com</p>	<p>1부예배 오전 7:20 2부예배 오전 9:00 3부예배 오전 11:00 한어평생찬양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 매일 5:30</p> <p>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00 3부예배 오전 11:00 영어평생찬양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 매일 5:30</p> <p>김영달 담임목사</p> <p>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p> <p>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p>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영 유아부 오전 11:00 유 초등부 오전 11:00</p> <p>중고등부 오전 11:00 나침반 한국학교 주일 오전 9:15 EM, 대학부 오후 1: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토 6:30</p> <p>민경엽 담임목사</p> <p>나침반 교회 모이는 교회 흠여지는 교회</p> <p>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T. (562) 691-0691 F. (562) 691-0698 / nachimban.org</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영어예배(GLMC) 주일 오후 12:30 수요기도회 수요일 저녁 7:3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p> <p>박일룡 담임목사</p> <p>로렘장로교회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 교회</p> <p>1759 W. Broadway Anaheim, CA 92804 T. (714) 956-7640 / (714) 956-5845 / WWW.ROHTHEM.COM</p>
<p>주일예배 1부 오전 8:30 2부 오전 10:30 3부 오후 12:20 4부 오후 2:00 (젊은이예배)</p> <p>주일학교 오전 10:30 새벽예배 월-금 새벽 5:30 토 새벽 6:20</p> <p>고현종 담임목사</p> <p>디사이플교회</p> <p>17502 Daimler St., Irvine, CA 92614 T. (949) 502-4923 / www.disciplecc.org</p>	<p>1부 주일예배 오전 8:00 2부 주일 영어예배 오전 10:00 3부 주일예배 오후 2:30</p> <p>새벽예배 오전 6:00 분당 수요기도회 저녁 8:00 분당 금요일 새벽 8:00 분당</p> <p>허규담 담임목사</p> <p>놀익연합감리교회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로 세우는 교회</p> <p>13000 San Antonio Dr., Norwalk, CA 90650 T. (562) 802-4959 F. (714) 308-7038 / us8291@gmail.com</p>
<p>1부예배 오전 8:45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9:30</p> <p>금요일 Alpha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p> <p>이서 담임목사</p> <p>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p> <p>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 821-9900, 9901 / visioncc.org</p>	<p>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p> <p>4부예배 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p> <p>김한요 담임목사</p> <p>베델한인교회 우리가 그리스도이다. 내가 그리스도이다. 하나님은 응답하신다.</p> <p>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p>
<p>주일예배 오전 8시, 오전 10시 화요일 오후 7시 (계시록) 금요일 오후 7시 (계시록 7교회)</p> <p>남상국 담임목사</p> <p>오픈바이블교회 OPEN BIBLE CHURCH</p> <p>800 S Harbor Blvd. #220, Anaheim, CA 92805 (Harbor + South) T. (949) 285-0619 / E. obchurch7@gmail.com</p>	<p>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p> <p>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p> <p>신원규 담임목사</p> <p>삼성장로교회 주님 주신 축복을 누리려는 성도의 삶 선교와 구제의 삶으로 살면</p> <p>501 S. Idaho St., La Habra, CA 90631 T. (562) 690-9800 / F. (562) 690-8044 www.socalsamsungchurch.org</p>
<p>주일예배 장년 1부 9:00am EM 1:30pm 장년 2부 11:00am 새벽기도 화-금 5:30am Youth 예배 12:15pm 토 6:00am Children 11:00am</p> <p>정철 담임목사</p> <p>새생명한인교회</p> <p>15 Goddard, Irvine CA 92618 T. (949) 341-0022 / (949) 398-7303 www.newlifekpc.org</p>	<p>주일예배 오전 10:45 EM/영어예배 오전 12:45 금요강화예배 오후 7:30</p> <p>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5:30 (화-토)</p> <p>김민재 담임목사</p> <p>예친교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친구' 공동체</p> <p>955 W Imperial Hwy Brea, CA 92821 ECCU Auditorium (Worship Center) T. (714) 788-3677 18639 Yorba Linda Bl., Yorba Linda, CA 92886 (교회 사무실)</p>
<p>주일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p> <p>수요일예배 오후 7:30 중등부 오전 9:15 고등부 오전 11:30 한어부 오전 11:30 KM대학장년부 오후 2:00</p> <p>권혁민 담임목사</p> <p>앨버틴온누리교회</p> <p>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 261-9100 / vision.onnuri.org</p>	<p>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후 7:00 중고등부 오전 11:00 대학장년부 오후 1:30</p> <p>금요일 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6:00 대학장년부 오후 1:30</p> <p>홍성준 담임목사</p> <p>앨버틴 한민음교회 믿음으로 하나되는 교회</p> <p>18182 Culver Dr., Irvine, CA 92612 T. (949) 769-9628</p>
<p>주일 삼십이 예배: 오전 9:00am 주일 한국어 예배: 오전 11:00am 주일 영어 예배: 오전 11:00am 주일 유초등 예배: 오전 11:00am</p> <p>금요기도회: 금요일 오후 8:00pm 새벽기도: 월-금요일 오전 5:30am 토요일 오전 6:00am</p> <p>이명경 담임목사</p> <p>토기장이교회</p> <p>1808 W Lincoln Ave. Anaheim, CA 92801 T. (714) 234-5338 / www.pottersccc.com E-mail: info@Pottersccc.com</p>	<p>주일: 10:30 AM Sunday School (All ages) 11:45 AM Adult Service 1:30 PM English Service 금요일: 7:20 PM 성경 66권 특별성경공부</p> <p>새벽예배: 5:30 AM (화-금) 6:30 AM (토)</p> <p>이승필 담임목사</p> <p>새로운 교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세뎌서 참으로 변함을 받아 해방의 선진사도 가뭄에서 온전신앙이 무르익고 분방히 열매를 맺으라</p> <p>12432 9th St. Garden Grove, CA 92844 Mobile: (949) 933-7242 Saerounchurchus@gmail.com</p>
<p>주일 인타레 생방송듣기 오전 6:30 주일 예배: 오전 11:30 목요 예배: 오후 7:30 토요 예배: 오후 8:30</p> <p>초등부 목요예배: 오후 7:30</p> <p>우대민 담임목사</p> <p>영광빛복음교회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알리는 교회</p> <p>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 (213) 291-5901 / (714) 833-2568 daekwon.org</p>	<p>주일 1부예배 오전 9:15 주일 2부예배 오전 10:45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영어주일예배 오전 10:00 영어주일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월-토 주일 오전 6:00</p> <p>유년부 초등부 예배 오전 11:30 영어중고등부 예배 오전 11:30 한어중고등부 예배 오전 10:30 토 주일 오전 6:00</p> <p>염영민 담임목사</p> <p>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행복한 교회 성급한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하는 교회</p> <p>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891-2029, 898-1068 F. 714-373-3097</p>
<p>주일예배 오후 1:00 (분당) EM예배 오후 1:00 (pre-school) 주일성경공부 오후 3:00 목요성경집회 오후 7:30</p> <p>새벽기도 (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이스라엘 세미나: 매일 첫째주 목요일 오전 10:00</p> <p>최국현 담임목사</p> <p>은혜와진리교회 부설: 이스라엘 알리아 선교회-성지순례, 정탐전문</p> <p>4000 Green Ave. Los Alamitos, CA 90720 T. (714) 351-0124 (Cell), (562) 475-4323 (Church)</p>	<p>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후 11:30 4부예배 오후 2:00</p> <p>새벽예배 평일 오전 6:30 토요일 오전 6:00 금요일 성령예배 오후 8:00</p> <p>한기홍 담임목사</p> <p>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성급한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하는 교회</p> <p>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p>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찬양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p> <p>금요일찬양기도회 오후 7: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p> <p>남성수 담임목사</p> <p>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삼는 교회</p> <p>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rcoc.com</p>	<p>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 목요일예배 오전 2:30 주일 선교학교 오후 7:30 최고등부예배 오후 7:30 최고 중보예배 오후 7:30</p> <p>수요 예배 오후 7:30 목요 성경학교 오후 7:30 금요일 새벽예배 오후 7:30 토요일 EM예배 오후 7:30</p> <p>앤드류 김 담임목사</p> <p>UBM교회 3세대가 함께 성장 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 교회</p> <p>1531 S. Sinclair St., Anaheim, CA 92806 Tel: 714-635-6402, Cell: 714-600-7700 www.ubmchurch.com</p>
<p>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3부: 오후 1:30</p> <p>수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45 (월-금)</p> <p>주혁로 담임목사</p> <p>주님의 빛 교회</p> <p>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www.lordlight.org T. (562) 896-9191, (714) 670-6700</p>	<p>결혼교실, 사도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p> <p>김철민 장로</p> <p>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p> <p>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p>
<p>성경적 목회 신학대학교 화장 정승복 목사 성경적 목회 교육원 원장 리세명 목사 사무간사 홍지윤 전도사</p> <p>성경적목회연합회 "누구든지 성경적 목회에 뜻을 두신 목회자께서는 문의 바랍니다."</p> <p>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el. (562) 896-9191, (714) 252-9191</p>	<p>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p> <p>조원재 담임목사</p> <p>하나님의 은혜교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교회가 되자"</p> <p>14706 Pioneer Blvd., Norwalk, CA 90650 T. (213) 247-7440 / godsgracechurch.org</p>

33년 전통의
HEALTH HQ구연산 명가
Since 1982

HQ구연산은 사랑입니다!

HQ구연산은 도매가 이하로 고객 직판을 하기 때문에 건강식품점이나 마켓에서는 구입하실 수 없으므로 타사 유사품에 주의하십시오. 구연산을 드실 때 신맛으로 고민하시는 분은 저희 **미네랄 건강소금**을 함께 타서 드시게 되면 **에너지 드링크**가 되어 건강에도 좋고 먹기에도 편리합니다.

HQ구연산의 효과에 대한 명성은 3백만병 판매 대박 히트상품을 만들어 냈습니다. 첫 출시보다 두 배나 더 되는 양으로 고객님들을 모시다보니 더 이상의 보너스를 드리기에는 많은 부담이 있지만 그래도 **"HQ구연산은 사랑입니다"**라는 슬로건을 만들어 낼 만큼 고객 사랑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질병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연구와 실험 그리고 인상을 거쳐 **100% 천연 물질로 각종 암과 난치병, 그리고 아토피와 더불어 면역 결핍**으로 야기되는 각종 질병들을 **예방과 치료**를 할 수 있는 의약품인 **미라팜-22**가 출시되어 또 다른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성의를 다해 준비했습니다.

당뇨, 고혈압, 변비에 효과가 너무 좋아 더욱 널리 소문난

HQ구연산

국민 건강 식품입니다. 가장 저렴하면서도 가장 탁월한 효능의 구연산!



프로모션 A
알파3병 + 오리지널7병 + 소금1병
미네랄 화색 소금(1LB) =
\$440 **\$100** No Tax

프로모션 B
오리지널10병 +
미네랄 화색 소금2봉지(2LB) =
\$460 **\$100** No Tax

프로모션 C
알파6병 + 오리지널2병 + 소금1병
미네랄 화색 소금(1LB) =
\$440 **\$100** No Tax



한 병은 2-3개월분
Kosher Approved Organic / 8온스(226그램) / 성분: 구연산 100%

HQ구연산은 **매실의 80배, 레몬의 200배** 농도의 100% 유기농 천연 알칼리 발효식품
HQ 구연산 효과는 확실합니다!
자신있게 권합니다!

구연산복용체험담

구연산 보급 30년에 각종 체험사례를 모았지만 너무 많아 이곳에 다 적지 못합니다. 구연산을 매일 2-3회 평생 드시면 암, 치매 등 예방하고 병원, 약값이 절약됩니다.

자도자도 피곤, 만성피로는 만병의 근원
당뇨 / 고혈압 / 만성피로 100% 환율 보장

노벨상을 3회씩이나 수상한 경이로운 식품

- **바르다넨 박사** (핀란드 1945)
구연산이 "구연산 사이클"의 열쇠가 되는 (오기자로 초산)이 되며 인체의 피로를 제거해 준다.
- **크레브스 박사** (영국 1953)
구연산이 인체 내 피로물질인 젖산을 빨리 분해하고 축적을 막아 피로회복과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어 피로회복과 노화를 방지한다는 구연산 크레브스 사이클 이론으로 노벨 생리 의학상을 받았다.
- **브르크 박사, 린넨 박사** (미국, 서독 1964 공동수상)
구연산은 체내에서 모든 영양물질을 완전 소화 흡수하여 인체내의 자연치유력을 최대로 하여 준다.

노벨상 홈페이지(www.nobelprize.org)를 방문해 검색란에서 Citric Acid를 검색해 보시면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연산은 약이 아니고 식품이면서 인체에 다음과 같은 도움을 준다.

- ◇ 구연산은 섭취하면 크레브스사이클의 출발물질이 되어 신진대사가 원활하여짐과 동시에 인체 피로물질을 신속히 배출하고 혈액을 맑게 하여 순환을 도와 2시간 내에 피로한 기색이 사라지게 한다.
- ◇ 구연산은 입맛을 당기게 할 뿐 아니라 식품에 붙은 세균을 살균시켜 소화불량, 위장병을 없애주며 장내의 활동이 원활해지고 장벽을 깨끗이 청소해줌으로 변비를 없애준다.
- ◇ 구연산 속의 변환효소는 혈관의 수축작용에 관계하여 혈압을 모두 낮춰주는데 획기적이다.
- ◇ 구연산은 체내 세포 내의 혈액을 산성화시키고 근육을 굳게 하는 독극물인 젖산(유산)과 초성포도산(필핀산)을 태워 없애주면서 당을 조절하여 당뇨병을 호전시킨다.
- ◇ 구연산은 간장에 해로운 중성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고 독소를 분해시켜 간장을 보호하며 간 기능의 부담을 없애준다. 또한 지방간이나 고콜레스테롤에서 해방되도록 해 준다.
- ◇ 구연산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술독과 담배로 인한 일산화탄소를 분해시켜 부부생활이 즐거워진다.
- ◇ 구연산은 정혈과 살균작용이 뛰어나므로 나쁜 피를 맑게 정화시켜 체외로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
- ◇ 구연산은 피부와 혈액순환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알러지와 가려움증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 ◇ 구연산은 발암물질인 과산화지질을 억제하고 세포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 기미의 원인인 멜라닌 색소를 배출시켜 버린다.
- ◇ 구연산은 젖산을 분해시켜 근육을 유연하게 할 뿐 아니라 통증을 없애는 부신피로호르몬을 분비시켜 요통, 어깨결림, 오십견을 없애준다. 또한 심한 운동으로 인한 인대가 늘어나거나 허리 통증을 없애준다.
- ◇ 구연산은 세포가 노화되어 동맥경화증, 고혈압, 간장병, 류머티즘 등과 같은 성인병의 유발과 노화의 원인인 유산을 분해시켜 피로를 없애주며, 산성화 된 인체를 약알칼리성으로 개선하여 준다.
- ◇ 혈액을 약알칼리성으로 유지하는, 즉 혈액을 맑게 하는 작용이 있으므로 자연히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주므로 신체의 모든 기능을 정상적으로 활동하게 한다.
- ◇ 만성신장병으로 신장의 기능이 저하, 부종, 고혈압, 전해질이상, 빈혈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그 정도가 심해 요독증에 이를 경우 신장의 기능을 최대로 증진시켜 노폐물이 쌓이지 않도록 도와준다.
- ◇ 좌골신경통, 요통 등의 통증을 완화해 주는데, 이는 약알칼리로 체질개선이 되기 때문이며, 맑은 혈액으로 혈액순환을 좋게 하여 자연 치유력이 최대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 ◇ 숙취에 효과적이며 간기능을 강화시킨다. 또한 산성혈액을 정화하여 항체체질로 바꾸는 작용을 한다.

- ★늘 피곤하던 몸이 가뿐해지면서 삶의 활력이 넘쳐 좋았다.
- ★간질환을 앓고 있다가 구연산 덕분에 완전히 회복되었다.
- ★당뇨가 심했는데 복용 3일 후 똑똑 떨어져 당약을 조절함.
- ★혈압 200이 넘음. 복용 후 120정도. 이제는 혈압약 안먹음.
- ★누나의 소개로... 지금은 보청기를 끼지 않아도 잘 들린다.
- ★신장염으로 온몸이 통통 부어 올랐는데 구연산이 낮게했다.
- ★여드름에 구연산 마사지를 해주니 맥 못 추는 것을 알았다.
- ★손, 발바닥 무좀을 구연산에 담갔더니 점점 회복이 되었다.
- ★방광에 대한 자각증상이 있었는데 장복 후 사라져 버렸다.
- ★대상포진으로 가려워 죽을 지경이었는데 먹고 바로니 나아.
- ★비염, 콧물 및 피부 알러지가 완전히 가셔져 계속 복용중임.
- ★7년간 피부암이었는데 3주 동안 먹는 것만으로도 치료됨.
- ★아토피를 앓았는데 구연산 물을 먹고 바로면서 나아졌다.
- ★온몸에 진물을 동반한 두드러기와 가려움증이 사라졌다.
- ★나는 당뇨와 17가지 합병증으로 자살을 3번 시도했다.
- 그러나 구연산 복용 후 2주 만에 완전 정상. 후에 목사 됨.
- ★린스처럼 사용했더니 탈모가 중지되고 가려움증이 없어졌다.
- ★요리할 때 식초 대신에 사용하면 훨씬 맛이 있고 좋음.
- ★당뇨로 잃은 왼쪽 눈, 두 달 만에 시력을 완전히 되찾았다.
- ★외출 시에 벌레물린 곳, 몸의 상처를 구연산으로 해결했다.
- ★가장상비약처럼 두고 항상 구연산부터 찾는 습관이 생겼다.
- ★전 농림부장관 30년 다른 약은 일체 끊고 구연산만 복용.
- 피검사 후 혈액이 20대 같음. 얼굴에 검버섯, 기미 사라짐.
- 79세인데 장기 복용하니 두뇌가 청년시절처럼 되돌아옴
- ★파킨슨병으로 고생하다가 구연산 두 달 먹고 테니스도 친다.
- ★통갈비, 잔갈비를 구연산에 재니 핏물이 빠지고 맛도 좋음.
- ★나물을 무칠 때 식초 대신 사용하면 훨씬 맛이 있고 좋음.
- ★밥을 할 때나 국을 끓일 때 구연산을 첨가하면 맛이 좋음.
- ★공부하는 아이에게 줬더니 졸지도 않고 집중이 훨씬 잘됨.
- ★운전할 때 구연산 물을 마시면 졸리지도 않고 피곤치 않음.
- ★눈이 침침할 때 구연산을 찍어 바르니 눈이 점점 맑아졌음.
- ★허가 심하게 갈라져 약을 먹어도 안되는데 구연산이 해결함
- ★위장병으로 속이 무척 쓰렸는데 구연산을 복용하고 나아짐.
- ★50년된 만성변비가 구연산 3일 복용 후 정상 변을 보게 됨.
- ★오십견으로 고통이 심했는데 1주일 후 통증이 거의 없어짐.
- ★구연산 복용 45일 후 42인치 허리가 36인치로 줄어들었음.
- ★만성 아토피와 간염이 구연산 1년 복용 후 완전히 사라졌음.
- ★구연산 복용 후에 피부가 너무 좋아지고 얼굴색이 젊어졌음.
- ★양상가락이 완전히 오그라들었는데 6개월 후 완전히 퍼졌음.
- ★다리가 저리고 걸을 수가 없었는데 보를 후 증상이 사라짐.
- ★유방암이 구연산만 장기 복용 후 완전히 사라짐. 목사 사도.
- ★10년간 사타구니의 피부암으로 고생하다가 점차 회복되어감.
- ★쌀이나 야채나 과일을 씻을 때 구연산으로 행구면 농약 끝.
- ★만성피로와 간장질환을 구연산을 먹고 지방간도 낫고 회복.
- ★30년된 부정맥이 구연산 복용 후 3일만에 정상맥박으로 됨.
- ★눈수술 후 안압이 잡히질 않았는데 45일만에 정상이 되었다.

이부경박사는 왜?

의사들의 검진결과에 대한 처방전을 구연산만으로 내려도 괜찮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만병 통치에 가까운 구연산을 왜 의사나 약사들이 권하지 않고 있었을까? 의과대학이나 약학대학에서 구연산을 가르치지 않고 있으니 알 리가 없고 안다고 해도 값싼 구연산으로 병을 고치려고 처방해 준다면 돈벌이도 안되어 병원 간판을 다 뜯어내려야 할 판국이니 누가 그 같은 짓을 한단 말인가?
때로는 내 자신도 이런 신비의 효능의 구연산을 혼자만 알고 건강을 지행하면 될 터인데 무엇 때문에 의학계의 눈총을 받아가며 목을 먹는 꼴까 생각해 본다. 건강은 행복의 원천이니 누구나 건강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
그런 면에서 구연산은 실질적인 건강의 파수꾼이라 할 만하다.
나는 구연산을 복용한 지 이제 막 20년째 들어서고 있다.
아마도 우리나라에서는 구연산의 최장기 복용 기록 보유자가 될 것도 같고 구연산의 신비성에 대하여 나만큼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드물 것 같다. 그러나 애독자들에게만 건강을 선사해 드리지 않을 수 없어 이 글을 써 보낸다.

- 이부경박사 현, 건강과학연구원장, 청주교육대학 대우 교수,
[주요 저서]: <노벨상감의 건강박사>(당뇨병 치료법)의 다수,
[상훈]: 녹조근정훈장, 철탑산업훈장, 녹조근정포장 등 수여

안전한 인터넷 홈쇼핑 www.KBSmall.com

HQ헬스 / HQ산삼 / HQ 바이오텍 L. A. 본 점 (213)365-2100
세리토스 직영점 (562)760-2359

LA 본점 : 833 S. Western Ave. #1 LA, CA 90005
세리토스직영점: 12224 South Street Artesia, CA 90701

월-금: 10am-7pm, 토:10am-5pm

12224 South Street Artesia, CA
세리토스 직영점

사랑하는 아들이! 네가 아니면 누가 가랴?

에볼라와 싸우며 고난이 오히려 축복임을 고백하는, 씨에라리온 김성림·김현나 선교사



케네마 지역의 정글 속 무슬림 지역인 반데부 교회에 부흥을 맞고 있다.

지난해 에볼라 바이러스가 발생하여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기 전까지 아프리카의 씨에라리온 지역은 전혀 알려지지 않은 하나의 선교 불모지에 불과했다. 그러다가 에볼라 바이러스가 발생하고, 그 전염병으로 인하여 많은 희생자가 급속도로 확산되자 씨에라리온은 세상의 이목을 받기 시작했다. 이방인인 이곳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겠으나, 죽음의 사선을 넘나들며 그 선교지를 지키고 있었던 김성림·김현나 부부 선교사에게는 필연이요, 기도 응답이었다.

무슬림이 장악하고 있어 복음의 빛을 비추기에는 불가항력적인 일이 너무도 많고 감당할 능력밖의 일도 너무나 많았던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에라리온 지역이 세상에 알려져 복음의 기쁜 소식이 하루라도 더 빨리 전해지고 한 영혼이라도 더 많이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음은 환난 중에도 축복으로 임하시는 주님의 실재를 온 몸으로 체험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고 김 선교사는 담대히 고백했다.

지금으로부터 약 4년전, 김 선교사 부부는 막대한 정치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는 무슬림 세력에 맞선 복음 전파 사역에는 한계를 느끼고 기도 하기 시작했다.

“주님, 하나님께서 공물이 여기서는 이들을 위하여 더 많은 섬김의 손길들이 머무르실 수 있도록 이 지역을 세상에 알려 주세요”

아주 간절히 기도했다. 낮은 무릎과 눈물의 기도를 아주 간절히 하기 시작했다. 무슬림이라는 강력한 어둠의 쇠사슬에 묶여 지쳐가는 이들

종족들이 하루빨리 주님 품으로 돌아와 구원받고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2월 현재, 씨에라리온은 에볼라 바이러스로 인해 약 22,000여명의 감염자와 약 8,80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에볼라 바이러스로 인한 2차 문제가 발생한 것은 당연지사이다. 그 문제의 심각성은 상상 그 이상이다. 그 문제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관계의 단절 2. 정부에 대한 불신임 3. 사회적 불안감 4. 학교 폐쇄로 인한 교육열의 급격한 저하 5. 수

“에볼라 고아”로 고통받는 아이들에게 사랑의 손길이 필요해요!

많은 에볼라 고아 발생 6. 심각한 식량 문제 및 기아로 인한 굶주림 등으로 볼 수 있다.

UN 및 WHO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인해 점차 감염자수가 줄어 들고 있지만 언제 어떻게 다시 확산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지난해 6월에 폐쇄했던 학교도 오는 3월 30일 경에는 다시 개교할 것으로 발표되고 있다.

교회의 상황도 여전히 어렵기는 마찬가지이다. 전염병 확산의 우려 때문에 법적으로 사람 모이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적은 인원이나마 모

여서 예배 드리고 전도하고 있다. 케네마 지역의 정글 속 무슬림 지역인 반데부 교회는 새로운 성도들로 인해 많은 부흥의 소식이 전해지고 있기도 하다.

이 지역은 전통 무슬림 지역이라 마을 진입이 철저히 거부 당하던 지역이었다. 이루헤아릴 수 없는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지금은 비예배를 드리기엔 이르렀다. 비록 건물 없이 나무 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긴 하지만, 14일에는 현지 사역자를 통해 세례식까지 집례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이 세례식은 이미 지난해 12월에 치러졌어야 했지만 에볼라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잠시 중단되었었다. 또한 잠정적으로 중단되었던 교회 건축도 성도들과 마을 사람들이 힘을 모아 다시 진행하고 있다.

현재 씨에라리온은 이웃 나라 기니와 라이베리아에 비해 현저히 작은 나라이기에 그 환경과 상황이 훨씬 더 열악하여 큰 고통 가운데 처해 있다. 특히 “에볼라 고아”라는 신종어가 나올 정도로 부모 잃은 아이들이 굶주림과 돌봐줄 손길이 없게 방치되어 있는 상태다.

많은 이들의 사랑과 관심은 기도의 바람을 타고 전해질 것이고 후원은 이들을 실제적인 굶주림에서 구해 줄 것이다. 먼저 이들을 돌봐줄 수 있는 고아원 건립이 시급하다. 또한 교회를 건축하여 2세들이 예수 안에서 진정한 신앙을 세워갈 때 씨에라리온은 소망과 제자화가 가능할 것이다. 아프리카의 아주 작은 지역 씨에라리온, 하지만 이곳을 통해 아프리카 전역을 향한 주님의 발걸음이 바빠질 것을 확신한다.

-후원 및 집회 문의

전화: 714.451.9709
이메일: goafrica7@gmail.com
웹사이트: www.jesusmission7.org



김현나 선교사가 씨에라리온 지역 아이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있다.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모암바 무슬림지역에 오토바이를 이용하거나 손수 건축 자재를 운반하여 교회를 건축하고 있다.

모암바 지역 모사렐로교회 건축현장

무슬림지역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교회

이 지역은 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오지 무슬림 지역 중 하나이다.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유일한 교통수단이다. 그래서 교회 건축 자재 운반은 오토바이에 의존하거나 동네 주민들과 어린이들이 머리로 직접 날라 건축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 지역은 “여자할레”와 토속 종교가 자리 잡고 있던 마을로 마을 진입시 몇 번의 쫓겨남과 위협이 있었지만 지금은 무당인 “주주”가 마을에서 나가고 약 150여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 또한 현재 제자 교육과 세례식이 예정되기도 한 지역이다.

기독교 상황과 기도 제목

1. 이곳 현지의 무슬림 세력은 막대한 자금 지원(학교 및 교복 지원, 모스크 건축과 방송을 통한 포교 활동)등으로 빠른 속도로 세력이 확대되어 가고 있다. 물질의 지원이 아닌 영원한 생명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풍성한 삶의 평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가 필요하다.

고 잘 알려지지 않은 씨에라리온에 더 많은 이들의 방문과 관심으로 전하는 자, 가르치는 자들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참 모습을 알 수 있도록 기도가 필요하다.

2. 현재 이 나라의 대표적인 교회나 대형 교회들은 나이지리아 등 다른 나라의 목회자들로 이루어져 복음보다는 성도들의 숫자, 물질 등으로 개인주의로 흐르고 있는 상태이다. 반면에 복음주의 교회들은 열악한 환경과 여건 중에서 믿음을 세워 나가고 있다. 깨달음의 지혜를 허락해 주시길 기도 동역이 절실하다.

5. 경제 침체로 인해 도시(프리타운)로의 인구 유입이 매우 많기 때문에 생활 범죄 등이 빈번하다. 경제의 활성화와 치안을 위한 기도가 간절히 요구된다.

3. 혼합주의(기독교와 천주교)로 인해 퇴폐적인 교회가 많다. (음주, 흡연, 가무 등) 영적인 회복을 위한 기도가 시급하다.

6. 이 나라는 토속 종교가 오래 전부터 암암리에 행해 지고 있다. 그 중 3-4월이면 특히 여자 어린 아이 할레가 이루어진다. 이 행위로 인해 이들의 삶은 완전히 암흑 가운데로 빠져든다. 특히 여자 할레인 “분두” 남자 토속 종교 행위인 “바바니” 그리고 그들이 영광적으로 섬기는 신의 행차인 “란차니” 등은 절대적인 권력을 후광에 두고 이루어지고 있다.

4. 매일 밤 8시부터 새벽 2시까지 이루어지는 부흥회(신비주의)로 인해 기독교의 정체성이 혼탁해 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천주교, 무슬림 등을 그저 한 신, 한 종교로 인식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외되

각 대학의 학생 그룹과 심지어 나라의 장관들조차 이 그룹들의 멤버들로 그 힘이 강력하다. 이러한 무지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모두 끊어지고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기도가 요청된다.

TOGO & 캐더링 환영

머글래 싸갈래

특석떡볶이 개시!!!

연말연시 동향회 및 단체모임, 교회행사, 가족모임 캐더링·도식락

월	복어국 돈까스 오징어볶음 새우볶음밥 해물수제비	화	닭불고기 풍치구이 오므라이스 떡만두국 우거지갈비	수	동태찌개 함박스테코다리찜 카레라이스 유부+우동	목	갈비탕 재육볶음 자반조림 소고기볶음밥 오뎅백반	금	공치김치 떡볶고기 민어구이 김치볶음밥 오징어찌개	토	부대찌개 갈치구이 돈까스 치킨데리야끼 김밥+우동
----------	---------------------------	----------	----------------------------	----------	---------------------------	----------	---------------------------	----------	----------------------------	----------	----------------------------

요일별 음식 하루종일 \$7.99

323.660.1004 (천사)

213-598-5552

4429 W. Beverly Blvd.
LA CA 90004

*주일은 쉽니다.

*타운내 신속배달 (2인분 이상)

Dealer No. 62655



중고차 황제
김기형
 213-747-5900
 714-743-1000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막 9 장 23 절

\$중고차 고가매입\$

“기본 **\$700 더** 드리는 헤밀리자동차”

새차 리스, 중고차 매매

전차종 All Makes & Models
HONDA, TOYOTA, LEXUS, BMW, MBZ
 고급차, 유럽차, 일제차, 경매장 안내해 드림



www.familyauto.us

중고차를 판매하시면 새차는 원가에 뽑아드립니다.



213-453-5900
714-743-1000

933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이슬람 원리주의와 지하드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이어서 소련연방이 해체되면서, 75년 동안의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시험이 종식됐다. 미국계 일본인 경제학자 프란시스 후쿠야마는 자유민주주의의 깃발 아래 전 세계가 번영할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러나 칼 마르크스가 지나간 자리를 무함마드가 대신하였고, 전 세계 곳곳에는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에 의한 테러가 일어나고 있으며, 이슬람은 공산주의를 대체하는 새로운 이데올로기로 등장하게 됐다.

미국 CNN 방송은 테러리즘합동 연구소(START)의 보고서를 인용, 지난해 아프리카와 중동, 아시아 등지에서 8,500건 이상의 테러가 발생해 약 1만5,500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5,000건이었던 2011년에 비해 69%나 증가한 수치로, 2012년 전 세계에서 발생한 테러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 수는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 1980년대 중남미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던 테러가, 1990년대 이후로 북아프리카와 중동 등에서 급격히 늘어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다.

2013년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7건의 테러 가운데 6건은 이슬람 원리주의 단체인 알카에다가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리주의 용어의 이해

‘원리주의’란 용어는 기독교 용어로서 ‘근본주의’라고도 한다. 원리주의 용어는 1920년 미국의 복음주의자들 가운데 과격한 일파를 지칭하는 데 처음 사용됐다. 20세기 들어오면서 자연과학이 급속히 발달하고, 권위주의적 교권 아래서 형성된 기독교 세계관이 무너지자, 그에 대한 반동으로 이들을 기독교 원리주의자라고 불렀던 것이다.

이후 1940년대 등장한, 전통적이면서도 과격한 무슬림을 ‘이슬람 원리주의자’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용어는 어디까지나 비이슬람 세계, 특히 영어권에서 이들에게 붙여준 이름이다. 따라서 그 어원부터 서구의 시각과 편견이 담겨 있는 것이다. 실제 이슬람 세계에서는 ‘이슬람 원리주의자’라는 용어를 기분 좋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신에 주로 이슬람주의나 이슬람주의자라는 말을 선호한다. 본질적으로 모든 무슬림들은 원리주의자라고 할 수 있다.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이슬람을 현대에 적용하는가가 차이일 뿐이다.

이슬람 원리주의는 이슬람 사회가 이슬람의 원점으로 돌아갈 것을

주장한 운동이다. 이슬람 사회가 서양 사회에 예속된 원인을 이슬람의 타락으로 보고, 초기 이슬람의 순결한 정신과 엄격한 도덕으로 돌아감으로써 이슬람 사회가 재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슬람은 초기에 정교 일치의 지도이념으로, 움마(Umma, 이슬람 공동체)라는 강력한 정치체제의 근간이 되어 왔다.

20세기 들어와 현대적 의미의 이슬람 원리주의 운동을 대중적 바탕으로 추진한 세력은 ‘무슬림형제단’이다. 이집트 청년 교사 하산 알반나가 많은 사람들과 이슬람 부흥을 토론하고, 무슬림 사회와 이집트 정치 문화의 개혁을 도모할 목적으로 1928년에 창설했다. 그리고 그는 외국의 지배에서 벗어나 이슬람 원리를 따르는 이슬람 국가로 재건되어야 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하산 알반나의 주장도 개혁 사상의 선구자인 무함마드 압둘과 그의 제자 라쉬드 리다의 사상과 큰 차이는 없으나, 그의 창의성은 개혁운동의 활성화에 있었다. 즉 현대적 정당성을 창설하여 그 행동지침을 포괄적으로 마련하는 데 있었다.

이 운동은 1940년대 이후 무슬림 세계의 여러 나라에 영향을 미쳐, 2차 세계대전 말기 조직된 수는 100만 명에 이르렀고, 조직은 5,000개의 지부에 달했다. 또한 그의 무슬림형제단은 오늘날까지 무슬림 세계 곳곳에서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각종 원리주의 운동의 모체가 되었기에, 그를 20세기 이슬람 원리주의 운동의 효시로 간주한다.

그가 무슬림형제단 결성과 운동에 성공한 것은 압둘 알 와합, 자말 알 딘 아프가니, 무함마드 압두, 라쉬드 리다로 이어지는 살라피야 이슬람 원리주의 운동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무슬림형제단의 중심 이념으로 담아냈기 때문인데, 이들은 살라피야 사상에 입각한 기존 사회질서의 변혁을 도모하여 종교적 투쟁 지하드를 외쳤다.

하산 알 반나가 이집트의 무슬림형제단을 세우고 활동할 때, 마우리나 마우두디가 1941년 파키스탄에서 자마티-이슬라미를 창설했다. 그 무렵 서구나 그들의 사회에서 이를 심각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 알 반나와 마우두디는 변화가 천천히 일어날 것이라는 점을 깨달았다.

그들은 거절과 핍박을 예상하면서 미래의 세대들을 훈련하는 데 집중했다. 그들은 목표를 달성하는 데 무척 성공적이었다. 하산 알 반나와 마우두디의 세계관에는 공통점



유해석 선교사
FIM국제선교회 대표

이 있었다. 그리고 그 세계관은 후에 발생한 이슬람 운동들의 분투(Jihad, 지하드)에 영감과 정보를 제공해 주었다.

다음은 두 사람의 공유한 세계관의 중요 내용들이다.

▲이슬람은 모든 것을 아우르는 전체적인 삶의 방식이며, 이는 무슬림과 그가 속한 공동체와 정치 생활의 지점이다 ▲꾸란과 무함마드의 초기 무슬림 공동체는 무슬림의 삶의 기초이며, 매일 취할 수 있는 행동의 모델을 제시해 준다 ▲이슬람 법(샤리아)은 서구 모델에 의존하지 않는, 현대 무슬림 사회의 이상과 청사진을 제공해 준다 ▲무슬림이 쇠퇴하는 이유는 이슬람을 떠나 서구를 의존했기 때문이다. 이슬람의 옳은 길로 돌아가면 금생에서 이슬람 공동체의 정체성과 긍지, 성공과 힘, 그리고 부가 회복될 것이며, 내세에서 영원한 상급을 받을 가치가 있다 ▲과학과 기술을 이용해야 한다. 이것은 이슬람의 맥락 내에서 성취되어야 하며, 사회의 서구화와 세속화를 피하기 위해 서구의 이질적인 문화를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

▲개인적·공동체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이슬람 개혁과 혁명을 실천하는 사상과 행동 차원에서의 노력과 분투인 지하드는 사회와 세상을 성공적으로 이슬람화하는 수단이다. 이슬람의 급진적 성향은 자기중심적인 서구에 대한 적대감, 서구제도의 구조적 모순에 힘입어 20세기 후반에 일어난 새로운 기류이며, 서구의 식민지배와 근대화가 야기한 빈곤층이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세대를 뛰어넘는 이슬람 원리주의의 공통점은 시대와 지역에 따라 이름·목표·양상이 다양하다. 그러나 동일하게 미신적 관행과 이단적 혁신을 반대하고, 원초적 이슬람으로 돌아가자-꾸란과 하디스의 확고한 위치-는 것이다. 알라의 통치만이 완전하므로 민주적 결정도 제동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세속적인 것에 명백히 반대하고, 세속적인 것과 종교적인 것의 새로운 화합을 도모하며, 이슬람과 자연

과학은 서로 보완적이지만 정치나 사회제도는 그렇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슬람 원리주의 운동의 특징

첫째, 원리주의자들은 정치와 종교가 하나인 정치이념을 제공한다. 즉 그들은 꾸란과 하디스에 근거한 샤리아를 모든 정치·경제·교육·사회·가족 문제 적용을 주장한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법적 체계는 인간이 만든 것인 반면, 샤리아는 알라가 인간을 위하여 부여한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둘째, 이슬람 원리주의는 폭력을 정당화한다. 지하드는 폭력 사용 정책을 지지하는 이슬람 교리이기 때문에, 이슬람 원리주의의 조직체 수백 개 가운데 75%는 군사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시아파에서는 지하드를 여섯 번째 신조로 고백한다.

셋째,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은 선교활동에도 적극적이다. 무슬림들은 종교적으로 이슬람을 세상에 전파할 의무가 있다. 꾸란 34장 38절에도 “우리는 너희를 모든 민족에게 파송했다”는 대목이 나온다.

이슬람의 다와(Dawah, 선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것은 비무슬림을 이슬람으로 개종하라는 초청의 의미와, 무슬림으로 태어난 자들에게 더 나은 무슬림이 되라는 부름의 의미이다.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은 학교, 모스크, 출판, 학생단체, 전문기관과 사회봉사단체를 통해 그들의 메시지를 전파했으며, 그들은 종교적 헌신, 현대적 지식, 기술, 그리고 사회정치운동을 결합했다.

이슬람 원리주의운동에 대한 편견

서구는 이를 이슬람의 새로운 도전이나 위협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서구의 이슬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구조적으로 다른 이슬람에 대한 몰이해에 있다. 이슬람 원리주의운동은 서구가 빚어낸 모순된 국제정치질서와 경제적 수탈, 세속적 각종 관행과 제도에 대한 이슬람의 대응이다.

근대화로 인한 시행착오는 정체성의 위기를 가져왔고, 이슬람 원리주의운동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을 펼쳤다. 무슬림에게 정체성을 제시하는 것은 이슬람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노력을 서구에 대한 도전으로 만든 것은 서구의 자기중심성이다. 이슬람을 극단주의의 하나로 단순화시키는 편견이다.

20세기 후반에 새롭게 등장한 급

진적 성향은 이슬람 원리주의운동의 한 부분일 뿐이다. 원리주의운동의 다양하고 극렬한 투쟁 방식에 대해 일반 무슬림들은 거부감을 갖고 있다.

지하드의 이해

지난 20세기와 21세기 지하드란 말이 상당히 많이 사용됐다. 저항운동가, 해방운동가, 테러리스트 모두 자신들의 명분을 정당화하고 추종자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 동일하게 이 단어를 사용했다.

지하드는 ‘애씀, 노력 불만, 불참성 및 비난의 대상을 상대로 투쟁하는 데 자신의 힘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슬람 연합에는 지하드를 ‘싸우다’는 뜻으로 정의한다. 이것은 전쟁 뿐 아니라 개인 또는 공동체에 의해 이뤄지는 다른 형태의 전투를 포함하는 꾸란의 개념으로, 무슬림들의 안전을 추구하고 이슬람의 가르침을 실천한다는 의미로 확대됐다.

이슬람에서 지하드는 단 두 가지 상황에서 허용된다.

첫째는 방어할 때이다. 무슬림들은 공격을 받아 그들의 자유·평화·정의가 훼손될 때 싸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역사를 연구해 보면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무슬림은 수많은 침략전쟁에 참여했고, 그 결과 영토와 부를 얻었기 때문이다.

둘째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이다.

롤란드 아모어는 7세기 이슬람의 팽창을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한’ 지하드의 한 예로 제시한다.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이 이슬람 법의 직접적인 통치에서 벗어나 있다는 사실이 잘못이라는 것이다. 무슬림들의 논리에서 시작됐다는 것이다. 지하드는 무슬림들이 샤리아 법 앞에서 유포되어야 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세계 모든 것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무함마드가 사망한 632년 이후 평화적인 포교활동과 무역 및 지하드가 결합된 신흥종교 이슬람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중동에 분거지를 둔 여러 이슬람 제국들이 북아프리카와 이란, 인도, 동남아시아, 이베리아 반도 및 발칸 반도를 장악하자, 무슬림들은 지하드에 굴복한 이교도에 비해 자신들이 우월하다고 확신했다. 이처럼 이슬람 제국은 지하드를 통해 7세기부터 17세기까지 확산됐다. 이후 원리주의자들에 의해 확산되어 갔다.

추나
수술 없이
척추 치료



장수한의원

척추 확장이 전!

척추 교정

골반 교정

자세 교정

근육 교정

- 디스크 치료 후에도 계속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
- 팔이 뻣기고 저리며 통증이 있거나 감각이 없으신 분
- 목을 돌리기 힘들고 통증이 있으며 손가락에 감각이 없으신 분
- 어깨 통증으로 팔을 들어 올리기가 힘든 분
- 잠을 자고 난 후 갑자기 목을 움직이지 못하며 통증이 심하신 분
- 갑자기 허리를 움직이지 못함 정도로 통증이 심하신 분
- 지긋지긋한 허리통증과 만성 디스크로 뼈뿔어진 척추
- 엉치 및 다리가 뻣기고 저리며 통증이 있으신 분
- 물건을 들다가 삐끗하여 허리가 아프신 분
- 그 외 척추로 인한 모든 질병 걱정 뚫!

통증 클리닉: 중풍마비, 관절염, 두통, 신경통, 요통, 디스크, 허리, 목
성 클리닉: (남성)전립선, 발기부전, 조루, 정력저하, (여성)불임증
한방 내과: 감기, 천식, 고혈압, 당뇨, 위장병, 갑상성 질환, 변비, 알러지, 피부병, 비염
한방 부인과: 불임증, 갱년기 장애, 월경불순, 산전 산후 보약
한방 정신과: 치매 및 예방, 우울증, 불면증, 각종 스트레스 질환
한방 소아과: 하악체질, 소아경기, 성장방 및 보약 **기타**: 비만치료

이런분께 ...

- ▶ 이곳 저곳을 다녀 봤지만 효과 못본 분
- ▶ 지긋지긋한 고질병을 앓고 싶은 분
- ▶ 본인은 고통스럽고 불편하나 병원을 가도 병명이 나오지 않는 분

한방 특진 안내 >> 침, 뜸, 부항, 추나

두통, 목, 오십견, 요통, 관절염, 좌골신경, 신경통, 중풍, 위장병, 간장병, 심장병, 신경쇠약, 신경통, 고혈압, 부인병, 갱년기 장애, 어린이 보약, 산전산후 보약

각종 보험 환영 직장상해보험
 교통사고 및 스포츠사고 전문
 HMO (이지초이스)
 통증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

(213)381-7575 / Cell:(213)219-2739 장소를 이전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1144 s western ave #104
 월-금 오전9시-오후6시, 토요일 오전9시-오후2시 (예약 하신분에 한해서 밤 10시까지 진료) **Los Angeles ca 90006**

복새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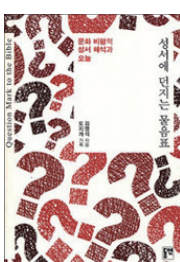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신간추천

성서에 던지는 물음표
김영석 | 동연 | 297쪽

‘문화비평적’ 관점으로 성서 해석에 대한 물음과 해답을 펼쳐 나간다. 저자에 따르면 ‘문화비평적 성서 해석’은 역사비평적 계보를 이으면서도 서구의 그것을 비판한다. 성서는 경전이지만 인간의 문화를 반영하므로 다양한 형태의 문화와 사상이 녹아 있어, 문화라는 옷을 살피지 않고 성서를 해석하는 일은 ‘독을 빼지 않고 복어를 먹는 것’처럼 유치하고 위험하다고 한다.



회복적 정의 실현을 위한 사법의 이념과 실천
하워드 제어 | KAP | 128쪽

정의와 공의, 평화라는 개념이 추상적·관념적 영역에 머물지 않고,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구체적 삶의 자리에서 실현되도록 기획된 ‘KAP 정의와 평화 실천 시리즈’ 6권이다. <회복적 정의란 무엇인가>를 쓰며 정의와 사법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는 데 선구적 역할을 한 저자는, 책에서 ‘회복적 정의’와 사법을 가능하게 하고 유용하게 하는 실천적 이론과 실무를 제시한다.



메시지 구약: 시가서
유진피터슨 | 복있는사람 | 540쪽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위한 성경 옆의 성경 ‘메시지 구약: 시가서’는 교인들에게 성경을 읽게 해주려는 한 목회자의 열정에서 시작되었다. 거리와 시장과 식탁에서 사용하는 언어, 가족과 친구와 동료들과 사용하는 일상의 언어로 쓰여 1년에 걸쳐 완성된 그 번역을 읽은 교인들은, 성경이 능히 읽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한편 피터슨 목사의 ‘메시지’ 66권도 완역됐다.



널 위해 기도할게
김원광 지음 | 두란노 | 352쪽

은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의 위대함을 항상 느끼게 하소서. 이 책은 ‘어머니기도회’의 대명사가 된 중계총성교회 김원광 목사가 자녀를 위해 드렸던 기도문을 모은 것이다. 성경 말씀을 따라 영·혼·육(영적 성숙, ‘성품’, ‘돌보심’, ‘축복’)을 아우르는 기도문으로 90일간 기도하는 습관을 세우고 기도문을 기록해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녀에게 선물하는 책이다.



REVIEW

성폭력 피해자들의 수치와 절망, 무엇으로 위로할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는, 할 수 있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성폭력으로 입은 피해를 은혜와 구원으로 회복할 수 있음을 설명할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가 겪은 고통 가운데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이요... 거기서 인생이 끝이라는 생각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복음의 메시지가, 완전히 망가진 것 같았던 수치스러운 삶을 은혜로 인도할 것이다.”
영단어 ‘디스그레이스(disgrace)’는 수치, 망신, 불명예라는 뜻을 갖고 있다. 이 단어에서 부정적 의미의 ‘디스(dis)’를 벗기면 그레이스(grace), 즉 ‘은혜’가 된다. 저자들은 <디스그레이스, 디스를 벗다>는 제

목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지울 수 있다고 격려한다.
부부인 저자들은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희망과 힐링’을 담은 이 책에서 “어떤 형태로든 성폭력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면, 이 책은 우리에게 관한 책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책이라고 조심스럽게 말하고 싶다”고 한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절망을 소망으로 바꾼다는 것은 성경과 예배 말씀을 통해 수없이 들었던 하나의 ‘공식’이지만, 막상 자신에게 그 끔찍한 사건이 닥치면 모든 이론과 이성엔 정지되고 만다.



디스그레이스, 디스를 벗다
저스틴 S. 홀컴, 린지 A. 홀컴
홍성사 | 344쪽

저자도 사무엘상 13장에서 다말이 이복오빠 압논에게 당한 성폭력을 예로 들며 “다말이 느낀 바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며 겪어야 했던 심정과 매우 흡사하다”고 동의한다.
예수님도 가까운 친구에게 배신당하고, 다른 친구들에게 조롱당하고 매 맞고 공개적으로 수치와 굴욕을 당했으며,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느꼈다는 것.
1-2장에서는 성폭력에 대해 진솔하고 정확하게 다루기 위해 성폭력의 정의와 결과, 특히 ‘성폭력 이후’의 심리적 손상에 대해 기술했다.

3-8장에서는 부인, 왜곡된 자아상, 수치심, 죄책감, 분노, 절망 등, 성폭력을 당한 후 일어나는 구체적인 감정들에 대한 해결을 다룬다. 9-11장에서는 성경이 말하는 죄와 폭력, 성폭력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 알려준다.
책은 갈수록 흉악한 범죄들이 기승을 부리는 세상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레이스’만이 ‘디스그레이스’를 이겨낼 유일한 길임을 역설하고 있다. ‘성폭력’의 범위가 얼마나 광범위한지 재인식할 기회도 된다.

이대웅 기자

성화 특별 기획전

크리스천이라면 가정에서 하나쯤은 꼭 소장하고 싶은 '최후의 만찬'과 예수님 성화를 특별 할인판매 합니다.
교회 임직자들 선물용으로, 교회에 하나쯤은 꼭 비치하면 좋습니다.



성화특별기획전

- 36×18 - \$ 200
- 19×25 - \$ 150
- 27×19 - \$ 200
- 8×12 - \$ 70
- 6×8 - \$ 40

가까운 기독교 서점에 문의하세요
문의 기독교일보 T) 213-434-1170

한국교회의 영적 분별에 대한 10가지 기준 제시

김영한 박사, '성령은사연구 시리즈' 첫 번째 「영적 분별」 출간

머리말

21세기는 성령의 시대인 동시에 치열한 영적전쟁의 시대이다. 매일 우리는 21세기 과학과 철학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영적 현상들을 우리 개인의 삶과 공동체의 삶에서 체험하고 있다. 부정적인 영적 현상으로는 이단과 사이비 종교들의 활동 및 전국적 사령(死靈)카페 운영, 각종 중독(특히 음란, 도박, 알코올, 마약, 폭력 등), 이혼, 자살, 극악한 패륜과 지능적 범죄의 증가가 있다. 평화를 말하지만 미움이 도사리고 있으며, 믿음을 말하지만 불신이 더 커지고, 정직을 말하지만 거짓이 난무하는 현실이다. 인간의 이성과 도덕과 법과 양심만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전도된 인간 관계와 왜곡된 사회현상을 경험하면서 오늘 우리는 영적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2년 전 전에 사도 요한은 초대교회를 향하여 “영들을 분별하라”고 교훈하였다: “사랑하는 자들이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요일 4:1) 이 말씀은 비단 초기 기독교 시대의 상황만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사회의 현상 상황이다. 어느 일간지 보도에 의하면, 현재 한국 사회에서 자칭 하느님이라는 사람이 20명, 자칭 재림 예수라는 사람이 40명이나 된다고 한다. 이러한 각종 이단의 득세와 사이비 종파들의 발호는 우리 교회와 사회의 영적 건강에 심각한 적신호를 의미하는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분위기를 가운데서 한국교회의 영적 혼미를 성경적으로 타개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이번에 “개혁신학의 관점에서 본 『영적 분별』”(킹덤북스, 2014년 11월)이란 저서를 출판하기에 이른 것이다.

1. 은사중지론의 입장

최근에 교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 운동과 관련하여, 많은 질문

을 받는다. 성령의 역사에 동반하는 은사와 기사·이적들이 지금도 있는 것인가? 있다면 거기에 나타나지는 현상이 성령의 역사의 외적 증거인지, 아니면 신비주의에 빠진 것인지? 교회 역사에서 위대한 지도자들에게도 이런 문제가 늘 제기되었던 것이다. 이에 대하여 교회 역사적으로 두 가지 상반된 신학적 해답이 주어져 왔다. 은사와 이적·기사는 사도 시대와 더불어 지나갔다는 은사중지론(cessationism)과, 오늘날에도 지속된다는 은사지속론(continualism)이다.

한편 일부 신학자들, 예를 들어 18세기에 영국의 유명한 정통신학자, 버틀러 감독(Bishop Butler), 기브슨 감독(Bishop Gibson), 그리고 근대에 와서 미국 구프린스턴학파의 워필드(B. B. Warfield), 오늘날 웨스트민스터신학교 리처드 개핀(Richard Gaffin) 등은, 은사와 기사(奇事)·이적(異蹟)은 사도 시대에 끝났고 지금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은사중지설을 천명하였다. 워필드는 기적적인 은사(gifts)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계시와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증언하고 확인시키는 데 있었는데, 그 목적이 다 성취되었으므로 지금은 그런 은사와 기사·이적이 필요치 않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18세기 웨슬리(John Wesley) 시대에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 버틀러 감독(Bishop Butler)은 “성령의 기적적인(비정상적인) 은사나 초자연적 역사(역사)는 사도 시대와 초대 교회에만 속한 것이고, 따라서 말세(오늘날)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행하는 것은 헛된 일이며, 그것은 영광주의자들의 교리”라고 주장하며 웨슬리를 비판했다.

2. 은사지속론의 입장

그러나 우리는 놀라운 부흥운동이 있는 곳에서는 계속하여 지금도 은사와 기사·이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본다. 18세기 영국에서의 웨슬리 전도운동에서는 놀라운 은사와 기사·이적이 동반했다. 미국에서의 뉴잉글랜드 지방의 각성운동, 칼빈주의자 조나단 에드워즈(Jonathan



영적분별
기독교학술원 킹덤북스
김영한 | 278쪽

Edwards), 19세기 미국 회중주의 전도자 찰스 피니(Charles Finney), 무디(D. L. Moody)의 부흥운동, 그리고 1875년 영국 호수지방에서 시작된 케지 사경회(The Keswick Convention)도 성령의 거룩한 임재와 성결과 봉사를 강조하고 있으며 14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19세기 미국의 성결-오순절 운동에서는 놀라운 은사와 기사·이적이 그들의 전도사역에 동반했다. 20세기의 영국 웨일스의 칼빈주의 감리교 설교가 로이드 존스(Martin Lloyd-Jones)도 성령의 기쁨 부으심을 강조하고 있다. 1903년 원산 부흥운동과 그 파급으로 절정에 이른 1907년 평양 장대현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난 대각성 운동은 회개를 통한 영적각성운동으로 성령의 부으심이 있었고, 1970년대 초교파적으로 일어난 민족복음화운동에서도 성령의 부으심이 있었다.

이러하여 오늘날,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은사지속설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각성은 세계복음화를 위한 로잔운동에서 메아리치고 있다. 20세기 로잔 언약(The Lausanne Covenant)은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The Whole Gospel)의 선포에는 기사·이적이 동반함을 믿는다. 우리는 웨슬리의 말대로 지금도 복음이 권능으로 전파되며,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살고 있다면, 성령은 비상적인 극적인 은사 곧 카리스마타(charismata)를 나타낸다고 믿었다.

필자는 은사지속론을 지지하나 오늘날 은사는 사도 시대와 동일시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오늘날 주

어지는 은사나 일어나는 이적과 기사는 사도 시대의 그것과 동일시될 수 없기 때문에 사도적 계시(the Apostolic revelation)와 동일시될 수 없다. 만일 그렇다면 영광주의적이고 비성경적이라고 비판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저자는 와그너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신사도운동(the new Apostolic movement)을 비판적으로 보며, 건전한 성경적 은사 현상은 신사도적 은사운동과는 다르다고 선을 긋고 있다. 필자는 오늘날 토론토 블레싱 운동(the Toronto Blessing movement)을 중심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무차별적으로 쓰러지고 회개의 역사 없이 영적 환상이나 황홀경 체험에 치중하는 영적 체험에 대하여는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3. 개혁신학적 영적 분별 지침 10가지

필자가 이번에 출판한 저서 『개혁신학적 관점에서 본 영적 분별』은 현재 한국교회와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복잡하고 다양한 영적 현상에 대한 연구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책에서 필자는 ‘성령과 사탄에 의한 영적 현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주목하면서, 그 부제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특히 여러 혼란스러운 영적 현상에 대해서 성경신학적, 역사신학적, 종교현상학적, 그리고 영성신학적인 고찰을 하고, 그 결과 올바른 영분별을 위해 ‘사도신경’의 신앙고백을 중심으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진리의 영적 현상을 감지할 수 있는 기준은 5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즉 ①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영, ②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영, ③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영, ④공교회를 인정하는 영, 그리고 ⑤사도신경의 내용을 고백하는 영이다. 이 5가지 기준은 어느 하나도 생략할 수 없다. 이 5가지 기준은 또한 ⑥일상생활에서 성결, ⑦인격적 믿음, ⑧인격적인 삶, ⑨이웃을 위한 헌신, 그리고 ⑩선행의 삶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어떤 기적이거나 신비 현상, 직통계시, 입신, 방언, 예언기도, 축사(귀신 축출), 신유(병 고침) 그리고 지도자(교주)의 카리스마나 영광적 종교행사가 결코 진리의 영적 현상을 담보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마 7:22-23 참조). 필자는 구프린스턴신학의 ‘은사중지설’을 따르지 않고, 종교개혁 이후 복음주의 개혁신학의 전통에 따라 ‘은사지속설’을 지지한다. 저자는 전반적으로

로 ‘신령주의’와 ‘합리주의’의 양극단을 지양하여, 성경적이며 신학적으로 바른 영분별의 입장을 추구하고 있다.

맺음말

본 저서가 한국교회 성령론의 새로운 정립에 자그만 기여를 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앞으로 동료 및 소장 후배학자들의 보다 날카로운 비판도 기대하는 바이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선교 역사상 짧은 시기인 130여년 만에 유례가 없는 양적 발전을 하는 가운데서, 각종 영적 혼미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 가운데 한 가지 매우 조심스러워야 할 것은 공교회가 이단을 규정하는 데 보다 신학적으로 신중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자기 교단의 신앙과 신학의 입장과 맞지 않는다고 하여 이단 내지 사이비로 규정, 너무 많은 개인이나 단체가 이단 내지 사이비로 규정받아 교인들 사이에는 헛갈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한 교단에서 이단으로 간주받는 개인이나 단체가 다른 교단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이단과 사이비에 대한 기준이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면 공교회의 교리적 영적 정체성을 보존하는데 어려움이 야기하는 것이다. 이에 필자의 저서는 이에 대하여 좁게는 5가지, 넓게는 10가지 기준을 제시하였다.

필자는 크게 이론 일 없이 어느덧 벌써 7순(旬)에 다가섰다. 필자는 나이만 들었지 항상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건강이 허락되는 한, 경건과 기도 속에서 더 연구하고 배우기를 바란다. 더 좋은 진리의 제안에 대하여 항상 겸허하게 열려 있다.



김영한 박사(살롬나비 대표/기독교학술원장/숭실대 기독교대학원 설립원장)

최첨단 3D 전신 스캔 검사

다나병원의 3D 전신 스캔 종합검사는 신체나 투입이나 통증없이 신속정확하며 과학적인 방법으로 뇌, 심장, 혈관, 간, 위, 척추 등 전신의 건강 상태 뿐만 아니라 위험 요소들을 미리 측정하여 예방도 가능하게 하는,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전신기능의 검사를 합니다.

유전자 생약치료 200여개의 유전자를 분석하여 질병위험과 전반적인 건강상태 상담. BAM(bio active molecule: 생리활성물질)으로 치료를 합니다.

다나병원 다나병원은 Well-Being과 Aging Care를 목표로 통합의학을 지향합니다. 621 S. Virgil Ave, #252, Los Angeles, CA 90005/ T. 213.487.0691

입으면 허리문제가 해결되는 희한한 옷!!

너무 쉬운 「NB 코르셋」의 원리를 알면 통증의 원인을 쉽게 고칠 수 있습니다. 「NB 코르셋」은 내 몸을 멋진 틀(NB 코르셋 깁스에 넣어 **자연 치유력**을 이용한 과학과 지혜로 미와 건강을 만들어 내는 **결작품**입니다.

NB CORSET

허리교정을 위한 남성용도 있습니다.

NB 코르셋의 특징

1. 24시간 입어도 갑갑하지 않고 편안함
2. 입자마자 자세가 달라짐(교정)
3. 입자마자 혈액순환이 달라짐(통증완화)
4. 특수 공법으로 수축되지 않고 인체에 완벽한 섬유와 세계 특허 이중지퍼 사용. 한국 **식약처**에 의뢰기기로 등록된 **교정 코르셋**

쓰러진 토마토를 세우는 것은 **버팀목**입니다. 의사가 척추를 바르게 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깁스를 하지 않고는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버팀목(기립근)이 약해서 제대로 지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NB 코르셋」은 늘어지지 않는 특수 천으로 깁스를 대신하고 코르셋 속의 10개의 버팀목이 약한 근육을 대신하여 골반과 척추와 경추를 바르게 교정해줍니다.

NB 코르셋이 필요하신 분

» 디스크환자
좌골신경통 허리통증 척추측만증 교통사고

» 각종 질환
요실금 증풍 관절염 손발 저림 만성피로

» 체형교정
골반 틀어진 분 허리 굽으신 분 O형다리 거북이목

» 미용효과
목주름 많은 분 얼굴비대칭 복부비만 부정교합

NB CORSET Tel: 323.316.6815

‘기적의 섬유’로 만든 「음이온 건강이불」 발이 불편한 분은 「NB 메디칼 슈즈」, 가장 강한 「SJP 슈퍼 유산균 건강제품 전문

무료 광고지참시 방문하신 모든분께

*자세 사진 촬영 *현미경 혈액 검사 *체질 검사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Family 자동차 \$중고차 최고가 매입\$

새차 맞춤 리스 중고차 매매 "기본 \$700 더 드립니다."

213.453.5900 714.743.1000

933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familyauto.us



100% 천연성분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PRO-Z GOLD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40년간 Zinc Metabolism을 연구해온 승문기 박사는 아연이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핵산 배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병자를 대상으로 12주 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 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 (January), 1998: pp 39-43 미국 특허 # 5,411,748 and #5,997,908

재미과학자 승문기 박사
-한국인 최초로 미 정부 지원으로 당뇨병 예방, 원인을 밝혀내서 상임연방 -전 UCLA 의과대학 연구교수 -미·제약군인병원 수석연구원 -세계 3대 인명사전 'Marquis Who's Who' 등재

PRO-Z USA Inc. 213.434.1170
미국 공식 판매처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1병 \$89 3병 \$249 6병 \$474
+tax +tax +tax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전문

(213) 342-7776 월서+킹슬리

법률 문제로 답답한 가슴을!!!

공인 법무사(CERTIFIED L.D.A & PARALEGAL #227 / BOND 57858F1090)인
제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한테 가시기전에 "꼭 먼저" 만나 보아야 할 사람입니다!

퇴거, 파산, 이혼, 이민, 민사소송
기타 각종 법정 서류 작성

714-667-0728 (영어) 2112 N. MAIN ST. #290, SANTA ANA
213-487-0728 (영어) 1543 W. OLYMPIC BL. #422, LA

TONERSUM 칼라레이저 프린터 리스(임대) \$49.99/month

선착순 5명

\$69.99 \$149.99 SAVE: \$80.00 (53%)

MULTIFUNCTION LASER PRINTER
레이저 프린터(칼라흑백)
Blow Out Sale!!
삼성토너 스페셜 리스트

SAMSUNG SCX SERIES SCX-3405W

HP, Brother Big Sale Tel. (626) 802-5712

사고 팝니다 New & Used Buy & Sell

각종 조립식 선반 전문

Select color

아외용 천막 Canopy Size (5'x5') (10'x10') (10'x20')

상점 및 그라지용 Boltless Shelving

창고용 Pallet Rack

중고 선반 대량 보유

99센트 미켓 선반, 창고 선반 수량 불문 현찰 매입

조립식 선반을 전문으로 취급하여 딜러십을 보유한 선반 전문 회사

(323)855-5687 / (213)200-3050 / (213)623-5491
646 S. San Pedro St. Los Angeles, CA 90014 Downtown LA (Between 6th, 7th St)

법무사 사무소 법적 해결

소장: Kenny Oh (323)377-5702 ko7law@gmail.com

번역 (학술/사업/개인) | 법정통역, 소송/방어서류
민사법 의도/과실/사기/부당 행위 피해, 입주자분쟁(소송/방어)
접근 금지 법원 명령
계약법 작성/분석/분쟁/수금문제 가정법 약식/일방이혼

1543 W. Olympic Bl. #580 LA, CA 90015 Law Office of R. Song

모/든/문/제/체/류/신/분/과/무/관

TOGO & 캐더링 원형 머글레 싸갈레

연말연시 동행회 및 단체모임, 교회행사, 기독교모임 캐더링·도식라

오일별 음식 하루종일 \$7.99

월: 부어귀 돈가스 오징어볶음 새우볶음밥 해물수제비
화: 타불고기 콩치구이 오모라이스 떡만두국 우거지잡채
수: 동태찌개 함박스테이크 피스타치오 카레라이스 유부+우동
목: 김치탕 제육볶음 자반조림 소고기볶음밥 오일떡볶이
금: 궁치김치 떡볶고기 돈가스 김치볶음밥 오징어찌개
토: 부대찌개 갈치구이 돈가스 치킨데리야끼 김밥+우동

323.660.1004 (천사) 4429 W. Beverly Blvd. LA CA 90004
213-598-5552

주일은 쉽니다. 타운내 신속배달 (2인분 이상)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귀국· 시내· 타주이사· 차량운송

한국식 포장이사도 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www.easy2424.com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온돌마루

UL마크 인증제품 사용 NRTL(미국 전기 안전 규격제품).

확기적인 절전제품/ 전자파제로

안방 아랫목, 거실, 기도실, 유아방, 침실방 설치중

피코 건축자재 (피코+카탈리나) 213)256-4884

A-1 정비 오일 교환

엔진 & 미션 전문

76 오일사용

10% 할인

\$23.99 *tax 6cyl.
\$18.99 *tax 4cyl.
\$28.99 *tax 8cyl.
(Carbon Filter Extra)

Tran (323)731-0613
Engine (323)752-2971

Tel. 323.737.2922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신고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전도와 신고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월 \$10
- 강사경력: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213.392.2323

한방생리대 도.소매 G. Together Inc.

- 인삼생리대
- 익모초생리대
- 한방생리대

Edward Kim 김인태, CEO
213-392-2323 (Korean) 213-500-5896 (English)
3544 W. 3rd St. Los Angeles, CA 90020 / G_Together_Inc@yahoo.com

베데스다 의료 봉사센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의료혜택을 못받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치과와 양, 한방등의 진료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213-384-7078

쇼스피드 다이어트 치아미백

잇몸 시큰거림 풍치예방 3개월 \$60

1주에 7파운드~25파운드 감량 1주분 다이어트 약 \$60 부터...

배배는 속변약 몸 전체 부종 빠지는 약 한달 \$50

하머니크림 (습윤크림)

- 임신 중 튜살 방지
- 건선으로 인한 붉은 주름(얼굴, 목)
- 트고 갈라진 피부 보습(발 뒷꿈치)
- 치질(항문하혈, 통증)
- 독소제거
- 갑상선, 당뇨병, 정력제
- 불임증(자궁축, 하혈)
- 우울증
- 관절염
- 원형탈모
- 구연산 캡슐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 Herbs Clinic
한국어: 213.380.7800 각종보험취급
영어: 213.380.6868 (오바마 케어 포함)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6가와 아드모어)
영업시간: 월~금:10시~5시/ 토 10시~2시

win HYUNDAI 원현대 칼슨 HYUNDAI

이번달 스페셜 리스 프로그램 이벤트 "2015년형 뉴 제네시스 입하"

현대차를 원하시는 당신께 최고의 가격을 제공하겠습니다!!

www.winhyundaicarson.com
한인타운에서 15분에서 20분거리
브로커 환영

Alex Shin 한인 Manager
2201 E. 223rd St., Carson, CA 90810
ashin@winhyundaicarson.com
Phon: 310.830.5100 (Ext 653)
Cell : 562.900.2399
Kakao ID: alexshin878

2015 Genesis ALL IN STOCK @ \$36,120
ALL NEW 2015 GENESIS SEDAN
Lease for \$249 PLUS TAX @ 36 MONTHS

2014 Genesis 3.8 ALL IN STOCK @ \$36,120
Lease for \$399 PLUS TAX @ 36 MONTHS

2014 Equus signature ALL IN STOCK @ \$36,120
Lease for \$399 PLUS TAX @ 36 MONTHS

주말에도 오픈합니다.
2201 East 223rd St. Carson 90810

유학생, 상사 주재원 도와드립니다.
Bad Credit, No Credit 연락주세요
미 서부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딜러

All advertised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any electronic filing charge, and dealer document processing charge, and any emission testing charge. All vehicles are at Carson location. Offers available through Jan. 27, 2014

'사도신경' 수정하고 '21세기찬송가' 보급 중지

기하성(여의도순복음), 제63차 제5회 실행위서 결의



실행위가 진행되고 있다.

기하성(여의도순복음) 제63차 제5회 정기실행위원회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담임 이영훈 목사)에서 전체 실행위원 78명 중 59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실행위는 실행위원 및 가입을 청원한 교회의 인준과 사도신경 일부 문구 수정, 찬송가 문제, 선거 시행세칙 등을 심의했다.

우선 교회 가입과 관련, 실행위는 "세대문과 양평동 측에서 오시는 분들께 문을 열어 놓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영훈 총회장도 "통

합은 그대로 진행하되 그 전에 가입을 희망하는 교회는 하자가 없는 한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사도신경 중 외아들, 사할 만에, 저리로써, 공회, 교통 다섯 문구를 각각 독생자, 사할째에, 거기로부터, 공교회, 교제로 바꾸기로 했다.

이영훈 총회장은 "개정된 사도신경이 다소 길어 기존의 것을 그대로 쓰는 교회가 많지만, 그것 역시 어려운 용어 등으로 인해 불편한 점이 있다"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또 "향후 한기총에도 이 안을 올

릴 것"이라고 했다.

또 '21세기찬송가'는 더 이상 보급하지 않기로 했다. 이 총회장은 "옛날 찬송가를 기반으로 한 새 찬송가가 나오면 그것을 쓰고, 기존 '21세기찬송가'는 1회에 한해 무상으로 교체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이어 선거 시행세칙 심의를 통해, 이번 총회 임원 선거 후보등록을 오는 4월 30일 오전 9시부터 5월 1일 오후 6시까지 받기로 했다. 더불어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감시와 처벌 또한 강화하기로 했다.

이 총회장은 "선거는 무엇보다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야 한다"면서 "특히 돈을 써서 선거운동을 하면 후보 자격이 제한된다. 우리가 먼저 본을 보이자"고 강조했다.

이 밖에 이 총회장은 "여의도순복음교회의 허락 없이 '여의도'를 붙여 (순복음) 교회를 세우는 경우가 있다"며 "이로 인해 마치 해당 교회와 여의도순복음교회가 관계가 있는 것처럼 오해를 받기도 한다. 이런 일들은 지방회의 정식 절차와 협의를 거쳐 이뤄져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진영 기자

서울시 동성애 확산 저지 "기도해야"

성북구 관내 교회들, 연합기도회 개최



참석자들이 기도하고 있다.

서울 성북구교협의회·성북교경협의회·종암교경협의회·성사연(성북구를사랑하는시민연대) 등이 6일 저녁 8시 '서울시와 성북구를 위한 연합기도회'를 서울 종암동 성북중앙교회에서 개최했다. 이는 타락한 성문화인 동성애를 옹호하는 서울시와 성북구의 행태들에 위기의식을 가진 성북구민들과 성북구 관내 교회들이 뜻을 같이해 연 '비상연합기도회'였다. 기도회에는 성북구 기독교계와 정계 및 각계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참석했다.

이날 기도회에서는 '서울시와 성북구를 위하여 울라'(겔 8:5-18)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한 원용식 목사는 "오늘 이렇게 연합으로 비상기도회를 열게 된 것은 서울시와 성북구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길 구하기 위함"이라며 "한 세기 동안 기독교인들은 나라의 위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며 구해냈는데, 이 나라가 동성애로 물들지 않게 눈물로 기도해야 할 상황이 왔다"고 했다.

원 목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세 가지 영적 정황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영적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가증한 짐승과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라며 "영적 지도자들과 세상 지도자들이 깨어날 수 있게 기도해야 하며, 우리가 영적 파수꾼이 되어 이 땅의 죄악을 놓고 기도하고, 우리를 통해 성북구와 서울시가 하나님나라 전략의 요충지가 될 수 있게 기도하자"고 전했다.

'서울시와 성북구의 영적 위기상황 보고'를 전한 김광규 목사(KHTV 보도국장)는 먼저 동성애의 실체에 대해 전한 뒤 성북구의 영적인 정황에 대해 나눴다. 김 목사는 "한성대 입구 쪽에 레즈비언 아파트 '핑크'이 있는데, 이는 기독교 단체에서 4천만원, 아름다운재단에서 박원순

이사장 시절 3년동안 2억원을 지원해 만들어진 곳"이라며 "작년 성북구에 국내 유일 동성애 옹호 상담소 '청소년 무지개와 함께 센터'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깨어 있는 분들 덕분에 막을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6월 14일에는 동성애자 퍼레이드가 서울 광장에서 열릴 예정인데, 서명운동(<http://sign.khvt.org>)을 통해 막아야 한다"며 "위기가 곧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성북구의 교회들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나라를 이루시길 바란다"고 했다.

합심기도 시간에는 유상진 목사(영암교회, 성북교구협의회 부서기)와 길성운 목사(성북중앙교회)가 '서울시와 성북구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역의 복음화와 관내 교회들의 부흥을 위해서' 등의 기도제목을 놓고 기도했다.

이어 김영배 성북구청장, 이승노 서울시 의원, 김춘례 성북구의회 의원의 인사말이 이어졌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이 땅의 많은 어려운 이들을 위해 성북구가 복지에 힘쓰고 있는데, 이를 통해 힘든 사회 속에서 희망의 빛이 될 수 있게 기도를 많이 해 달라"고 했다.

이승노 의원은 "2013년 성북구에서 동성애 관련 상담소로 걱정을 많이 끼쳐드리게 되었는데, 서울시의 원이기에 앞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으로서 저도 이런 일이 용납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춘례 의원은 "작년에 많이 아팠는데 하나님께서 살려 주셔서, 왜 살려 주셨는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무지개센터를 막으라고 살려 주신 것 같다"며 "이것을 막는 과정에서 신앙이 많이 자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딜 가나 이길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되었다"고 했다.

김은에 기자

실존에 참여하지 않는 본질, 생명없는 외침될 수 있어

실존, 본질로 가는 전초기지, 사랑은 율법의 완성과도 일치한 말



기독교상담학회 초청 목양포럼 '이 10일 오전 순복음강남교회에서 개최됐다.

(사)나눔과기쁨 강소교회운동본부(이사장 서경석 목사)가 1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로 순복음강남교회(담임 최명우 목사)에서 '기독교상담학자 초청 목양포럼'을 열고, 목회와 신앙생활에서 유용한 도구로 인식되고 있는 '기독교 상담'을 통해 목양 소프트웨어를 제공받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포럼은 노윤식 목사(한국복음주의선교 신학회장)의 개회기도, 서경석 목사의 환영사, 최명우 목사의 인사에 이어 박순오 목사(나눔과기쁨 상임대표)의 사회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계명대학교 임경수 교수와 교신대학교 하재성 교수, 기독교성상담연구소 박민수 교수가 차례로 발제를 담당했고, 한국인격심리학회 대표 심수명 교수(한밀교회)가 논찬을 맡았다.

임경수 교수는 "인간관계와 신앙: 실존과 본질의 문제"라는 제하의 발제를 통해 "본질과 실존이라는 두 개의 도식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어느 상황에서나 생각해야 할 두 개의 축"이라며 "본질은 인간이 본래 태생적으로 반드시 가야 할 길에 대한 원초적인 것이라면 실존은 그 원

칙에 따라서 생존할 수 없는 현실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임 교수는 "더 완벽해지고 완전해지려고 본질만을 추구하려는 사회적 분위기와 개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외적인 판단기준에 들어가면 마치 자신이 진리를 잡은 것처럼 생각할 수 있고, 반면 이러한 구조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마치 자기 자신을 낙오자나 무능력자로 생각하게 된다"며 "실존에 참여함으로써 본질을 이끌어내는 성숙한 부모의 교육과 예수가 죄인과 세리를 수용하는 삶의 자세는 실존과 본질의 불가분의 관계를 말하고 있다. 실존은 본질로 가는 전초기지이며, 이것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과도 일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후 하재성 교수는 '우울증: 슬픔과 함께 온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 박민수 교수는 '성경이야기 상담: 성서학과 상담학의 융합'에 대해 발제했고 질의응답과 폐회 및 인사로 마무리됐다.

이동윤 기자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저희 "삼성통운"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한번 클릭으로 이사의 모든 것을 해결 www.samsungmoving.com

이사의 명가(名家) 가주 삼성 통운(주)

귀국이사

- 집안 내에서 손님 입회하에 한국식 포장 서비스
- 포장 재료 무료 제공
- 한국에서 완벽한 가구 set up 과 쓰레기 수거

- 귀국자동차 운송
- 새 물품 구입 시 Sales tax return 혜택
- 무료 창고 보관 2개월 서비스

시내이사

- 한국식 포장 이사 전문 (한국인)
- 피아노, 돌 침대 취급 전문
- 포장 box 대여 및 판매
- 사무실, 공장 이사
- 창고 보관 가능

타주이사

- 무료 창고 보관 1개월 서비스
- 미국 내 전지역 정기 운행
- 샌프란 시스코, 베가스, 피닉스 당일 출발
- 싸애틀, 달라스, 아틀란타, 뉴저지 월2~3회 정기 운행

자동차운송

- 미 전지역 모든 승용차 운송 (7~10일 소요)
- 한국 및 동남아 자동차 운송 전문
- 초 저가 차량 운송

해외이사

- 하와이, 괌, 알라스카
- 중국, 일본, 남미
- 캐나다(밴쿠버, 토론토)
- 전 세계 선교사 이사 화물 전문

문의 1-877-580-2424 서울 (310) 538-3333 LA (323) 582-2424 OC (714) 777-7799

SAMSUNG SHIPPING, INC.
samsungmoving@gmail.com

- 주정부 허가: MTR-190586
- US - DOT: 1847208 ICC - MC: 669029
- Fully Insured & Bonded

100% 천연성분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당뇨! 원인 기능 개선제

PRO-Z GOLD



Special Price

✓ 미국 독점 출시 기념 파격 세일

1병 \$89 + tax 3병 \$249 + tax 6병 \$474 + tax



송해선생님이 자신있게 추천하는 프로지골드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PRO-Z GOLD

당뇨병의 원인?

혈액 속의 포도당 수치, 즉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가 지속할 때를 말합니다. 음식을 섭취 후 혈액으로 들어온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췌장 베타세포에서 나오는 인슐린이란 호르몬이 필수입니다. 만약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분비된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당뇨병의 치료방법은 있는가?

당뇨병은 조절은 할 수 있으나 완치는 불가능하며 단지 당뇨병의 진행을 정지시키고, 동시에 당뇨로 인한 합병증의 발생 및 진전을 예방하는 것이 일반론입니다. 현재 당뇨 환자들이 주로 복용하는 당뇨약들은 천연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 장기 복용 시 심각한 부작용(심장부종, 신장부종, 간독성)과 방광암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유수의 대학의 연구팀들의 연구결과로 드러났습니다.

송문기 박사팀은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1998: pp 39-43) 미국특허 # 5,411,748 and #5,997,908

당뇨병 회복의 새로운 메카니즘 '프로지'

'프로지'는 혈당강화제와는 달리 당뇨의 근본원인(인슐린 저항성 및 췌장 베타세포 파괴에 의한 인슐린 분비기능저하)을 해결하는 메카니즘입니다. 당뇨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면역력이 저하됨으로써 생긴 결과입니다.

아연은 면역력 강화에 중요한 필수미네랄입니다. 포도당을 세포까지 운반하는 역할을 인슐린이 하는데, 당뇨 환자들은 혈액 속에 여러 가지 요인(비만, 과음, 운동부족, 스트레스)에 의해 인슐린 반응도가 낮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IDE(Insulin Degradation Enzyme)라는 소화효소가 필수적인데 이 소화효소의 주성분이 아연이며, 아연은 췌장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저장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신 합성물질(CHP Plus Zinc) 프로지는 우리 몸속에서 근육과 지방세포로 아연을 운반하여 아연의 신진대사 활성화를 통한 인슐린수용체의 활성화 및 인슐린 수용체의 생성을 촉진함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합니다.

아연이 당대사와 밀접하다면, 왜 아연으로 만든 당뇨약은 없나요?

아연은 특성상 섭취 시 인체 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짧고 흡수율이 떨어진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음식에도 굴이나 소고기 등에 아연이 존재하지만, 섭취 후 3~4시간이면 소변으로 배출되고 몸에 흡수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아연이 췌장 세포 기능 복원이나, 근육세포의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해당 세포내 아연흡수율이 획기적으로 증가하여야 성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계는 지금까지 아연 흡수율 제고 물질이나 방법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송문기 박사의 신합성물질 '프로지'는 동물의 전립선에서 추출한 물질(CHP)을 아연을 킬레이트시킴으로써 아연이 일정시간 인체에 머물며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당의 대사를 도와 몸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송문기 박사와 연구팀은 한국인 최초로 미 정부 지원으로 이 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취득하고 당뇨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송문기 박사

UCLA 의과대학 연구 교수
미, 재향 군인 병원, 수석 연구원
세계 3대 인명사전 Marquis Who's who에 등재
40년간 당뇨연구에 매진한 대한민국 대표 과학자

프로지를 개발한 송문기 박사는 인류 복지 건강에 위해가 되는 당뇨, 비만, 알츠하이머(치매)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도록 40여 년간을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그는 하와이대학, UCLA 대학교수 미 재향군인병원(US VA Hospital)에서 근무했으며, 가장 시급한 당뇨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미국 연방식품의약품(FDA)로부터 신약 임상시험을 진행중입니다. 그 전에 FDA의 독성 TEST, 국제규격에 부합되는 임상 TEST를 거쳐 FDA로부터 신약판매 전에 건강기능식품(PRO-Z)으로 허가를 받아 당뇨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당뇨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당뇨원인 기능개선제' 프로지를 출시했습니다.

송문기 박사는 체내 아연 대사와 관련한 각종 연구성과를 통해 세계 3대 100인 인명사전 중 가장 권위 있는 Marquis Who's Who에 등재된 인물입니다. 현재 세계적인 과학지인 NATURE 등 세계 우수 연구 관련 기관의 심사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PRO-Z

한국 50만명 판매 SALE 1병 \$69 + tax 3병 \$179 + tax 6병 \$342 + tax

타주 대리점 및 프로지셀러모집중

213.434.1170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